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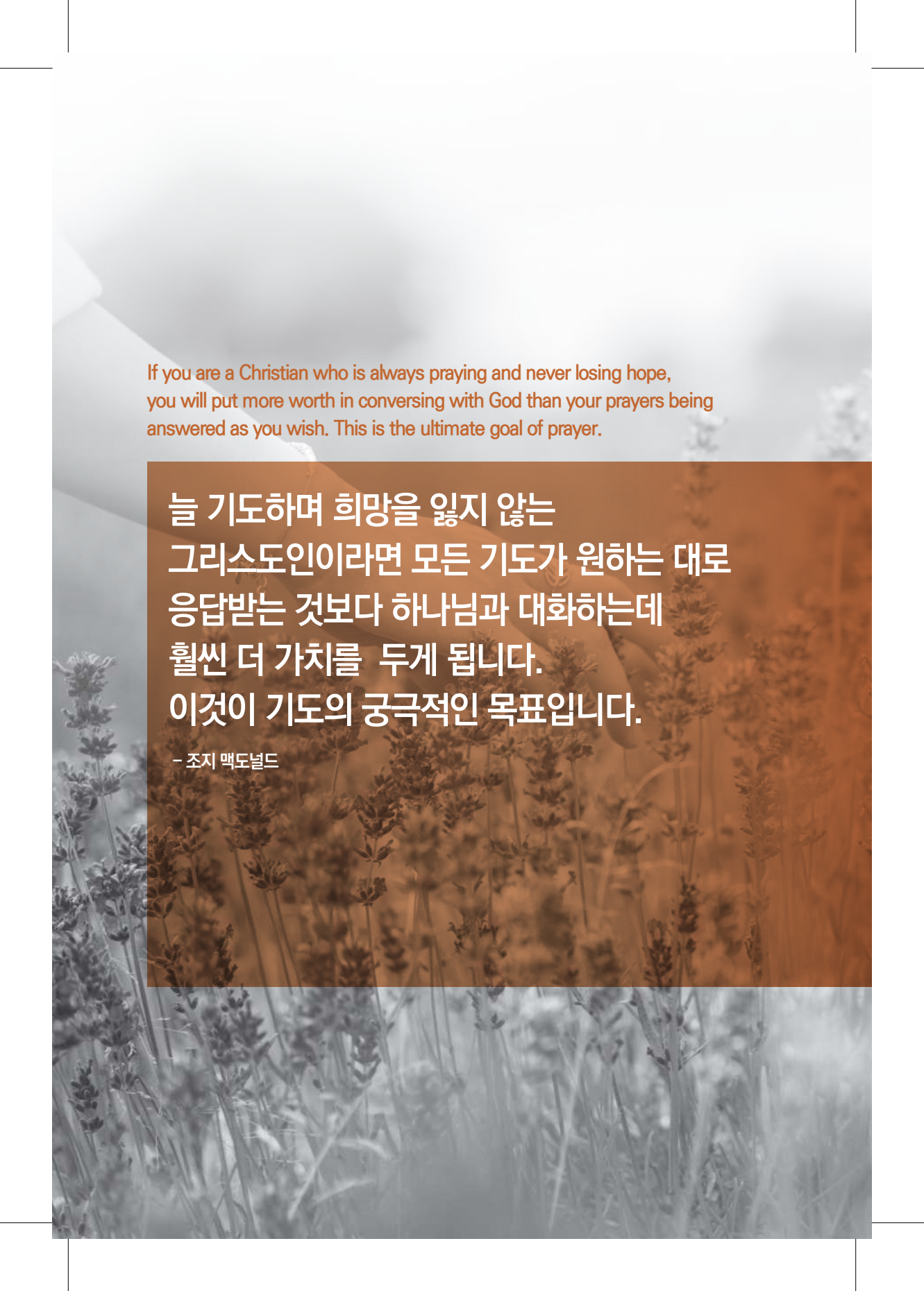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XNNA



If you are a Christian who is always praying and never losing hope, you will put more worth in conversing with God than your prayers being answered as you wish. This is the ultimate goal of prayer.

늘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조지 맥도널드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March 2023, 3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②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 ③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④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 ⑤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06

2023 JAN  
금요일 · Fri

## 빛의 자녀의 삶

Life as children  
of light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4

5

백잡기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원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이 교회도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마 28:4장(중206장) 오렐동안 모든 죄가 온대 빠져

2

에베소서 5:3-14

통독본문

에베소서 5장

6

3음행과 온갖 더러운 짓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무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Reading Insight

Paul urged people to be imitators of God. As Paul was talking about the holy life of believers, he urged peopl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e urged the church to be holy and blameless.

### The Abundant Love of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5:3-14	Ephesians 5

<sup>3</sup> But sexual immorality and all impurity or covetousness must not even be named among you, as is proper among saints.

<sup>4</sup>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r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sup>5</sup> For you may be sure of this, that everyone who is sexually immoral or impure, or who is covetous (that is, an idolater), has no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sup>6</sup>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comes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sup>7</sup> Therefore do not become partners with them;

<sup>8</sup> for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sup>9</sup> (for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sup>10</sup> and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sup>11</sup> Take no part in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instead expose them.

<sup>12</sup> For it is shameful even to speak of the things that they do in secret.

<sup>13</sup>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it becomes visible,

<sup>14</sup> for an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Therefore it says,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 7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무엇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5절)  
What did Paul call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v. 5)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fruit of the light?  
(v. 9)

### 8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장리교회, 진호영(CA)  
가나안한민연합장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Do Not even Mention the Name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전, 손을 닦고 오라고 이야기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벽이나 바닥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손 닦은 것이 무용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벽을 쓸거나 바닥에 넘어져 손을 더럽힌 채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수 없고, 다시 손을 닦고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5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마 5:28)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3절)고 말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12절).

반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며 다시 우상숭배하고, 외인이나 나그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Before giving snacks to children, we usually ask them to wash their hands and urge them, "On your way back from the restroom, come straight back here without touching the wall or the floor." We know clean hands will get dirty again and washing them would be an exercise in futility. Nonetheless some kids wipe the wall with their hands or fall on the floor and get their hands dirty again on their way back. Those children cannot be given the snacks and must wash their hands again.

Paul called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an idolater (v. 5). Jesus said that anyone who looked at a woman lustfully had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Paul said,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v. 3). Don't even think about them or speak about them because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them (v. 12).

On the other hand, we must get out of darkness and walk in the middle of light. As we decid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we will experience the fruit of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fulness and become imitators of God. As we are called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we must live quite different from our old life. Will you go back to the life of an alien or wayfarer, living with the unbelievers and idolaters? Or do you want to walk in the middle of light with thanksgiving and as heirs to the kingdom of God?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47

###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성경일독/말씀묵상

### 혼자서도 문제없다

####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바>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evotion)

# 03

[illegible]10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b>1</b> 사무엘상 1 Samuel 1장 □	<b>2</b> 사무엘상 1 Samuel 2장 □	<b>3</b> 사무엘상 1 Samuel 3장 □	<b>4</b> 사무엘상 1 Samuel 4-5장 □
<b>8</b> 사무엘상 1 Samuel 9장 □	<b>9</b> 사무엘상 1 Samuel 10장 □	<b>10</b> 사무엘상 1 Samuel 11장 □	<b>11</b> 사무엘상 1 Samuel 12장 □
<b>15</b> 사무엘상 1 Samuel 15장 □	<b>16</b> 사무엘상 1 Samuel 16장 □	<b>17</b> 사무엘상 1 Samuel 17장 □	<b>18</b> 사무엘상 1 Samuel 18장 □
<b>22</b> 사무엘상 1 Samuel 21-22장 □	<b>23</b> 사무엘상 1 Samuel 23장 □	<b>24</b> 사무엘상 1 Samuel 24장 □	<b>25</b> 사무엘상 1 Samuel 25장 □
<b>29</b> 사무엘상 1 Samuel 28:3-29 □	<b>30</b> 사무엘상 1 Samuel 30장 □	<b>31</b> 사무엘상 1 Samuel 31장 □	
		<b>02 February</b>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b>04 April</b>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겸손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 Why \_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 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 What \_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 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

## CHAPTER 5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겸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눅 22:26)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속에 나타난 겸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 나타난 겸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겸손이 없음을 발견함을 통해 우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스러움이 더욱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겸손을 통해 우리는 오순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더욱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만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준 사탄을 겸손으로 이기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가르쳐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제자들 사이에 영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세배대의 아들들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누가 제일 큰 자인지에 대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예시 외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겸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외쳤을 때가 그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끔씩 나타난 겸손(occasional expression of humility)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화된 교만(habitual pride)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삶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는 여전히 겸손의 마음이 결핍된 상태에서도 뜨겁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명백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진실로

---

---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사모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을 깊숙이 들여야 본다면 그곳에는 어둠의 세력(dark power)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악의 권세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많은 성직자, 선교사, 교사,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이 성령의 은사들은 많지만 겸손이라는 자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받거나 그들을 더 자세하 알아보면 겸손이라는 자세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은 우리는 슬프게 합니다. 이러한 슬픈 사실은 겸손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인간의 성품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얻기 힘든 으뜸가는 덕목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충만한 우리 안에 계실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사무엘상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유대교 정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된 하나의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이 기원전 2세기경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두 개의 두루마리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상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 말기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중에서도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부터(주전 약 1100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죽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는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역대상 29:29의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라는 구절을 통하여 유추해 볼 때 사무엘도 저자 중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칭한 것은 그가 이 책의 저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책의 전반부에서 그가 주인공 노릇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정을 갖춘 이웃 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압제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갈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로 부터 구원해 준 기드온에게 자손 대대로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삿 8:22).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삿 8:23)고 말하며 그들의 요청을 거


절합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신정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로 끝맺음으로써(삿 17:6; 18:1; 19:1; 21:25) 왕정 출현의 불가피성을 드러냅니다. 사사들의 지도력으로는 외적에게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안전하게 보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잠재한 분파적이고 지역주의적인 갈등이나 도덕적·종교적·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요구되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왕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 노릇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언약관계의 틀 속에서 어떻게 왕이 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인간 왕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점들은 사무엘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무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을 세우는 일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시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이스라엘 왕정의 신학적 정당성입니다. 왕정 문제의 신학적 해결책을 신명기 17:14-17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왕정이 불가피하게 도입될 때를 예상하고 왕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여호와의 율법이 이스라엘 왕의 통치 기반이 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왕도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정 체제 안에서 왕은 하나님의 부왕(副王)이자 백성의 ‘형제’이므로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군사력과 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왕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서는 신명기 사관에 기반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이 원리는 사무엘서에 적용된 신명기 언약의 기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 2:30b)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도 사울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밋세바의 일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같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삼하 12:10b)는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주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각 나라마다 통치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사무엘상의 구조

1. 사무엘 시대 (삼상 1-12장)
  - 1) 사무엘의 탄생과 소명 (1-3장)
  - 2) 엘리 시대의 종말 (4-6장)
  - 3) 사무엘 시대의 언약갱신과 승리 (7장)
  - 4) 왕정의 시작과 사울의 즉위 (8-12장)
2. 사울 시대 (삼상 13-31장)
  - 1) 사울의 통치 (13-15장)
  - 2) 다윗의 흥기 (16-31장)

01

2023 MAR  
수요일 • Wed사무엘의  
출생The Birth  
of Samu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고, 그 서원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서원대로 아이를 젖 떼 후, 실로에 있는 여호와와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아이를 드립니다.

🎵 새539장(통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1:9-18

사무엘상 1장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 Reading Insight

Hannah had no children, so she made a vow to offer a newborn son to God if she was blessed with a son by God. As a reward for her vow, Samuel was born. To honor her vow, once Samuel was weaned, Hannah took Samuel and brought him to the House of God in Shiloh to serve God.

🎵 Go, Carry Thy Burden to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9-18

1 Samuel 1

**9** After they had eaten and drunk in Shiloh, Hannah rose. Now Eli the priest was sitting on the seat beside the doorpost of the temple of the LORD.

**10** She was deeply distressed and prayed to the LORD and wept bitterly.

**11** And she vowed a vow and said, “O LORD of hosts, if you will indeed look on the affliction of your servant and remember me and not forget your servant, but will give to your servant a son, the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all the days of his life, and no razor shall touch his head.”

**12** As she continued praying before the LORD, Eli observed her mouth.

**13** Hannah was speaking in her heart; only her lips moved, and her voice was not heard. Therefore Eli took her to be a drunken woman.

**14** And Eli said to her, “How long will you go on being drunk? Put your wine away from you.”

**15** But Hannah answered, “No, my lord, I am a woman troubled in spirit. I have drunk neither wine nor strong drink, but I have been pouring out my soul before the LORD.

**16** Do not regard your servant as a worthless woman, for all along I have been speaking out of my great anxiety and vexation.”

**17** Then Eli answered, “Go in peace, and the God of Israel grant your petition that you have made to him.”

**18** And she said, “Let your servant find favor in your eyes.” Then the woman went her way and ate, and her face was no longer sad.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10절)

What did Hannah do when she was sorrowful? (v. 10)

요즘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What problems do you bring to God and pray while grieving?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송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아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브닌나가 맘속에 들어올 때

When Peninnah Entered Her Heart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슬픈 이유는 그 마음에 브닌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한나에게 빼앗긴 브닌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저주하고 조롱하자, 한나의 마음에 자신을 저주하는 브닌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브닌나가 자신을 멸시하고 격분시킬 때, 한나는 울며 먹을 것도 거부했습니다.

브닌나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녀의 마음도 슬펐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격동시키며 자신의 슬픔과 한을 풀어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브닌나와 맞서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녀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입을 꼭 다문 채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애통함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평안을 빕니다. 한나도 은혜 입기를 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한나의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있던 브닌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 안에 들어오시니 한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브닌나를 변화 시키거나, 한나에게 당장 아이를 주시지 않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 것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Depending on who enters one's heart and settles within it, one's life can change. Hannah introduced herself to the priest Eli by saying, "I am a woman who is deeply troubled." Hannah's heart was saddened because Peninnah entered her heart. As Peninnah lost the love of her husband to Hannah, and mocked and cursed Hannah who was childless, Peninnah who cursed Hannah entered the heart of Hannah. As Peninnah despised and angered Hannah, Hannah wept and refused to eat.

Peninnah was sad as well. Though Peninnah had children, she was sad because her husband loved someone else. Peninnah tried to lessen her sorrow and resolve her grievance by upsetting Hannah. But Hannah did not try to get even with Peninnah with her sorrow. She used her sorrow to implore God. She went to the house of God in Shiloh and prayed to God while weeping in sorrow with her mouth closed. And when the priest Eli heard her grieving, he prayed for peace for her. Hannah returned home hoping to receive the grace of God. From that point on, any trace of sorrow could not be found on the face of Hannah. She found the favor of God and received grace from God. Hannah's heart was occupied by Peninnah, but her heart was cleansed of Peninnah and was filled with God. Once God entered her heart, Hannah changed. Though God did not change Peninnah and did not immediately give a child to Hannah, Hannah decided to totally depend on God and received peace of mind. We need to always examine what is occupying our hearts. We should not allow the place in our heart to be occupied by worldly matters but by God. Only when God enters our hearts can we enjoy the peace and grace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 02

2023 MAR  
목요일 • Thu

##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Two Sons of Eli  
and Samu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칩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행하고, 이로 인해 엘리의 집에 저주가 예고됩니다.

### ♪ 새14장(통30장) 주 우리 하나님

묵상본문

사무엘상 2:12-17, 27-30

통독본문

사무엘상 2장

**12**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찢어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 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7**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30**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 Reading Insight

Hannah prayed to God with thanksgiving and joy when Samuel was born as an answer to her prayers. Samuel served Go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iest Eli. On the other hand, the two sons of Eli acted despising God and hence a curse loomed over the house of Eli.

## 🎵 The God of Abraham Praise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2:12-17, 27-30

1 Samuel 2

**12** Now the sons of Eli were worthless men. They did not know the LORD.

**13** The custom of the priests with the people was that when any man offered sacrifice, the priest's servant would come, while the meat was boiling, with a three-pronged fork in his hand,

**14** and he would thrust it into the pan or kettle or cauldron or pot. All that the fork brought up the priest would take for himself. This is what they did at Shiloh to all the Israelites who came there.

**15** Moreover, before the fat was burned, the priest's servant would come and say to the man who was sacrificing, "Give meat for the priest to roast, for he will not accept boiled meat from you but only raw."

**16** And if the man said to him, "Let them burn the fat first, and then take as much as you wish," he would say, "No, you must give it now, and if not, I will take it by force."

**17** Thus the sin of the young men was very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for the men treated the offering of the LORD with contempt.

**27** And there came a man of God to Eli and said to him, "Thus the LORD has said, 'Did I indeed reveal myself to the house of your father when they were in Egypt subject to the house of Pharaoh?'"

**28** Did I choose him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to be my priest, to go up to my altar, to burn incense, to wear an ephod before me? I gave to the house of your father all my offerings by fire from the people of Israel.

**29** Why then do you scorn my sacrifices and my offerings that I commanded, and honor your sons above me by fattening yourselves on the choicest parts of every offering of my people Israel?"

**30** Therefore the LORD, the God of Israel, declares: 'I promised that your house and the house of your father should go in and out before me forever,' but now the LORD declares: 'Far be it from me, for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and those who despise me shall be lightly esteemed.'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하나님을 멸시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17절)  
What were the acts of Eli's two sons that were in contempt of God? (v. 17)

당신은 어떤 행실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What deeds of yours reveal your respect for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블루밍턴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가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을 잊은 제사

Worship Service that Forgot God

한국 속담에 “제사보다 젓밥에 정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젓밥에 정신을 팔다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화목제사 이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질 고기에 더욱 관심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도 제거하지 않은 기름진 생고기를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삼상 2:30).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별로 상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12).

하나님은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이 잊혀진 예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특권임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There is a Korean proverb,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ceremonial food than the ritual.” But the two sons of Eli, Hophni and Phine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offerings than the worship and committed a serious sin against God.

When Eli’s two sons participated in the worship,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the meat to be distributed to them than worship. They violated the rules of worship given by God by taking raw meats that contained fats which were supposed to be offered to God. God said that what they had done showed contempt towards God. God said,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v. 30). Eli’s two sons, however, did not realize that what they were doing showed contempt towards God because they did not know who God was, and they did not care to know (v. 12).

God is the protagonist of all worship services. When the protagonist is forgotten, all worship services are degraded into instruments of our self-satisfaction and advantage. All worship should be respectful of God and for the satisfaction of God Himself. All believers should regard worshipping God as a special privilege, should worship respecting God, and should be grateful for the grace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03

2023 MAR  
금요일 • Fri

## 사무엘을 부르심

Calling of Samu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와 그의 집을 벌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로부터 자기 집에 관한 예언을 전달받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의 수종을 드는 자가 아닌 여호와와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 새569장(통442장) 선행 목자 되신 우리 주

독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3:7-18

사무엘상 3장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니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8**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 Reading Insight

God called young Samuel and revealed God's plan to punish Eli's household. Priest Eli received the prophecy of God regarding his household through Samuel. Now Samuel is no longer the household errand boy of Eli but is chosen as the prophet to receive the words of God and convey God's message to others.

🎵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Meditation

Reading Plan

### 1 Samuel 3:7-18

### 1 Samuel 3

**7** Now Samuel did not yet know the LORD, and the word of the LORD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8** And the LORD called Samuel again the third time. And he arose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for you called me." Then Eli perceived that the LORD was calling the young man.

**9** Therefore Eli said to Samuel, "Go,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you shall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hears.'"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10** And the LORD came and stood, calling as at other times, "Samuel! Samuel!" And Samuel said, "Speak, for your servant hears."

**11** Then the LORD said to Samuel, "Behold, I am about to do a thing in Israel at which the two ears of everyone who hears it will tingle.

**12** On that day I will fulfill against Eli all that I have spoken concerning his house, from beginning to end.

**13** And I declare to him that I am about to punish his house forever, for the iniquity that he knew, because his sons were blaspheming God, and he did not restrain them.

**14** Therefore I swear to the house of Eli that the iniquity of Eli's house shall not be atoned for by sacrifice or offering forever."

**15** Samuel lay until morning; then he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Samuel was afraid to tell the vision to Eli.

**16** But Eli called Samuel and said, "Samuel, my son." And he said, "Here I am."

**17** And Eli said, "What was it that he told you? Do not hide it from me. May God do so to you and more also if you hide anything from me of all that he told you."

**18** So Samuel told him everything and hid nothing from him. And he said, "It is the LORD. Let him do what seems good to him."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Why did God say that He would judge the household of Eli to eternity? (v. 13)

당신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어떤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What kind of advice do you offer to your children to raise them well spiritually?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운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엘리의 슬픔

The Sorrow of Eli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지만, 때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실망과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들들의 악행을 보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를 낙심케 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이를 금하지 않았으며 엘리 제사장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겠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자녀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There is a saying, “Farming of children is the most difficult farming.” Parents raise children with love hoping for the best for their children. Sometimes children do not listen to their parents and go astray then parents become disappointed and discouraged.

Priest Eli was full of worries upon witnessing the evil acts of his sons. Moreover, the Word of God conveyed through Samuel that Eli’s house would be cursed by God must have been a blow to him. The sins of Eli’s two sons were not the only reason for the judgment of God against the household of Eli. God rebuked Eli for not proactively trying to stop his sons from committing evil acts and held Eli responsible though God’s punishment was self-inflicted by his sons. In fact, Eli had rebuked his sons about the seriousness of their sins. Eli told them that it was a sin against God to show contempt towards worship and rebuked them by asking who would implore God on their behalf if they committed sins against God. But the two sons did not heed their father and did not return from sins.

It is not easy to persuade grown up children to return from their wayward ways. The only thing parents can do is try to raise children with the help of God. We need to trust God and surrender to God and not give up and try to raise children relying on the Word of God as a guid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 04

2023 MAR  
토요일 • Sat

## 엘리 집안의 멸망과 블레셋에 내린 재앙

The Fall of Eli's  
Household and  
the Disaster upon  
the Philistin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4:1-11

사무엘상 4-5장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크에 진 쳤더니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 여호와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와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 여호와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벤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 Reading Insight

Eli's two sons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to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and they died.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was taken by the Philistines. When Eli heard the news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as taken by the Philistines, he fell from his chair and died. The prophecy of God about the fall of Eli's household was fulfilled. Disaster from God is poured onto the Philistines who had taken the ark of the covenant.

## 🎵 Have Thine Own Way, Lord

Meditation

1 Samuel 4:1-11

Reading Plan

1 Samuel 4-5

**1** And the word of Samuel came to all Israel. Now Israel went out to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They encamped at Ebenezer, and the Philistines encamped at Aphek.

**2** The Philistines drew up in line against Israel, and when the battle spread, Israel was defeated by the Philistines, who killed about four thousand men on the field of battle.

**3** And when the troops came to the camp, the elders of Israel said, "Why has the LORD defeated us today before the Philistines? Let us b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here from Shiloh, that it may come among us and save us from the power of our enemies."

**4** So the people sent to Shiloh and brought from the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of hosts, who is enthroned on the cherubim. And the two sons of Eli, Hophni and Phinehas, were there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5** As soon as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came into the camp, all Israel gave a mighty shout, so that the earth resounded.

**6** And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e noise of the shouting, they said, "What does this great shouting in the camp of the Hebrews mean?" And when they learned that the ark of the LORD had come to the camp,

**7** the Philistines were afraid, for they said, "A god has come into the camp." And they said, "Woe to us! For nothing like this has happened before.

**8** Woe to us! Who can deliver us from the power of these mighty gods? These are the gods who struck the Egyptians with every sort of plague in the wilderness.

**9** Take courage, and be men, O Philistines, lest you become slaves to the Hebrews as they have been to you; be men and fight."

**10** So the Philistines fought, and Israel was defeated, and they fled, every man to his home. And there was a very great slaughter, for there fell of Israel thirty thousand foot soldiers.

**11** And the ark of God was captured, and the two sons of Eli, Hophni and Phinehas, died.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왜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5절)

Why did the Israelites shout when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entered their camp? (v. 5)

당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Have you ever treated God as an instrument to achieve your own objective?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송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송명철(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자유하신 하나님

God Who Was Free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승을 이룬 블레셋에게도 계획하지 않은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언약궤가 들어가자, 다곤 신이 넘어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성읍마다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To believe in God means to be called by God as one who will fulfill the will of God. But sometimes people use God as a means to fulfill their own will. Israel and Philistine were adversaries. Once defeated by the Philistines, the elders of Israel decided to tak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to the battlefield to win the war against Philistine. But God did not allow victory to Israel. Israel lost the war and lost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to the Philistines. The hopes of the Israelites were shattered.

Though the Philistines won a significant war, an unexpected disaster came upon them. Though the Philistines thought that they won the war against the God of Israel, as soon as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entered the shrine of their god Dagon, the statue of Dagon fell and the arms and other pieces of the statue fell off. Not only that, in all the towns that ha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people were inflicted with severe tumors and died.

The people of Israel and Philistine thought that they could control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But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could not be contained. The ark of the covenant was free to travel through the camps of Israel and Philistines and fulfilled the will of God. God showed that people should be the instrument to fulfill God's will, and God is not the instrument of people to fulfill the will of the peopl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05

##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종, 듣는 존재

김규현 목사 (열린교회, CA)

설교를 준비할 때 목회자의 고민은 어떤 문장을 쓰냐에 따라 혹시 교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해한 분들은 선포된 말씀인데, 사람을 신경 쓰냐라고 이야기 하지만, '오해'를 걱정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배려와 깊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려와 말씀이 어울릴까 싶지만, 입장바뀌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문장이 그래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좋지 오해나 불편함을 불러온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니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 교육을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의 다양한 목회 실패담(?)은 재미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이야기 중, 심방 중에 밥그릇을 돌리다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황당해서 그런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천진난만하게 농담이신지 진담이신지 모르게 나누는 어른 목사님의 이야기에는 생각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설마 밥그릇을 돌렸겠어!” 못 믿겠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그 어른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 말을 못 믿는 건가?”라는 핀잔(?)을 주셨으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지혜롭게 가르쳐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늘 성공에 목말라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무게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자연스럽게 성공과 실패로 부르심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이 그렇듯 경쟁에서 밀려나면 사라지는 즉 영원하지 않은 생명에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은 장면(3장)에서 낮설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권면합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삼상 3:9)

어른 예언자는 젊은 사무엘에게 주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열의 모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이야기를 가득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스승인 엘리가 부른 것으로 오해했었던 것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후배들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 06

2023 MAR  
월요일 • Mon

## 법궤의 돌아옴과 이스라엘의 회개

The Return  
of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the Repentance  
of Isra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법궤로 인해 재앙을 받은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 새433장(통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독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6:3-12

사무엘상 6-7장

**3**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낮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 여호와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벤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 여호와와 궤와 밧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으니

**12**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 Reading Insight

Having suffered disasters because of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the Philistines returned the ark to Israel. Samuel assembled the Israelites at Mizpah and asked them to repent for their sins. The Philistines attacked Israel at Mizpah, but they were subdued by the power of God.

## 🎵 Nearer, Still Nearer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6:3-12

1 Samuel 6-7

**3** They said, “If you send away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do not send it empty, but by all means return him a guilt offering. Then you will be healed, and it will be known to you why his hand does not turn away from you.”

**4** And they said, “What is the guilt offering that we shall return to him?” They answered, “Five golden tumors and five golden mi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for the same plague was on all of you and on your lords.

**5** So you must make images of your tumors and images of your mice that ravage the land, and give glory to the God of Israel. Perhaps he will lighten his hand from off you and your gods and your land.

**6** Why should you harden your hearts as the Egyptians and Pharaoh hardened their hearts? After he had dealt severely with them, did they not send the people away, and they departed?

**7** Now then, take and prepare a new cart and two milk cows on which there has never come a yoke, and yoke the cows to the cart, but take their calves home, away from them.

**8** And take the ark of the LORD and place it on the cart and put in a box at its side the figures of gold, which you are returning to him as a guilt offering. Then send it off and let it go its way

**9** and watch. If it goes up on the way to its own land, to Bethshemesh, then it is he who has done us this great harm, but if not, then we shall know that it is not his hand that struck us; it happened to us by coincidence.”

**10** The men did so, and took two milk cows and yoked them to the cart and shut up their calves at home.

**11** And they put the ark of the LORD on the cart and the box with the golden mice and the images of their tumors.

**12** And the cows went straight in the direction of Bethshemesh along one highway, lowing as they went. They turned neither to the right nor to the left, and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went after them as far as the border of Bethshemesh.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져나는 암소로 끌고 가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Why did the Philistines use cows that had calved to pull the cart that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v. 9)

당신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으십니까?

Through what do you realize and understand the providence of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우연인가? 섭리인가?

By Chance? Or God's Providence?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온 후, 블레셋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그것이 언약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 새끼가 있는 젖나는 소들에게 끌도록 합니다. 그 소들이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끄는 암소들이 송아지를 놔두고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갑니다. 이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암소와 같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주권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When something happens to us, sometimes we want to confirm if it is by chance or the providence of God. The Philistines believed that the source of their disaster was the ark of the covenant as they watched all the disasters taking place in Philistine after the ark of the covenant was brought to Philistine. Thus, the Philistines began to think that they better return the ark to Israel. Nonetheless, the Philistines were confused if it happened by chance or by the will of God. So they decided to try to confirm it.

When they returned the ark, they used two cows that had calved to pull the cart. If the cows went to Beth Shemesh in Israel, then it was God whose hand struck them otherwise it was by chance. Crying for calves penned up, the cows pulled the cart and headed straight to Beth Shemesh. Upon witnessing this, the Philistines realized that the disasters inflicted on them were by the hand of God.

All things are within the providence of God. As the Philistines watched the cows acting against their instincts heading straight toward Beth Shemesh without turning to the right or left, they witnessed the act of God. If we live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God, like the cows against our instinct, can people see and confirm from us that God is alive and controls our live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07

2023 MAR  
화요일 • Tue

#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Israel Asks for  
a K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왕으로 인해 벌어질 부정적인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무시하고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8:1-9

사무엘상 8장

- 1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 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 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 Reading Insight

The people of Israel asked Samuel for a king. Samuel said that asking for a king among them was to deny God as their king and warned that they would face many negative impacts coming from the kingship. But the people of Israel ignored Samuel and demanded a king and God promised to set the king up for them.

## 🎵 When We Walk with the Lord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8:1-9

1 Samuel 8

- 1 When Samuel became old, he made his sons judges over Israel.
- 2 The name of his firstborn son was Joel, and the name of his second, Abijah; they were judges in Beersheba.
- 3 Yet his sons did not walk in his ways but turned aside after gain. They took bribes and perverted justice.
- 4 Then all the elders of Israel gathered together and came to Samuel at Ramah
- 5 and said to him, "Behold, you are old and your sons do not walk in your ways. Now appoint for us a king to judge us like all the nations."
- 6 But the thing displeased Samuel when they said, "Give us a king to judge us." And Samuel prayed to the LORD.
- 7 And the LORD said to Samuel, "Obey the voice of the people in all that they say to you, for they have not rejected you, but they have rejected me from being king over them.
- 8 According to all the deeds that they have done, from the day I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even to this day, forsaking me and serving other gods, so they are also doing to you.
- 9 Now then, obey their voice; only you shall solemnly warn them and show them the ways of the king who shall reign over them."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Why did all the elders of Israel come to Samuel and ask for a king? (v. 5)

하나님 이외에 내가 왕으로 섬길만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Is there something else that I could serve as a king other than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나길석(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나를 버림이라

They Rejected Me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못하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셨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재물, 권력, 인기 등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인 체하는 존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실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 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Have you experienced being rejected by someone? Though I do love this partner and do my best for them, if they refused all this and walked away from me and went to be with someone else, I would be really sad.

God also experienced this kind of sadness. As Samuel was getting old, he appointed his two sons as judges for Israel. But as his two sons did not live up to the expectation as judges,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Samuel and asked for a king. Samuel felt that the people of Israel rejected him.

Then God told Samuel. “It is not you they have rejected, but they have rejected me as their king.” The Israelites thought that they needed a king to protect them against the Philistines. Until then, God had protected them and ruled as their king,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and sought a king from men and rejected God.

God is our king. But there are so many god substitutes like people, material, power, fame, etc. We must be believers to confess that only God protects us and rules over us and praise God as our king.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08

2023 MAR  
수요일 • Wed

##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The Meeting of  
Samuel and Sau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은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만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음을 알립니다.

🎵 새401장(통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9:15-24

사무엘상 9장

**15**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18**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20**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21**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량이었더라

**23**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24**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 Reading Insight

Saul began searching for the lost donkeys for his father and visited Samuel to ask for some advice. Samuel told Saul that God had chosen him as a king of Israel.

🎵 Saviour, Lead Me, Lest I Stray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9:15-24

1 Samuel 9

**15** Now the day before Saul came, the LORD had revealed to Samuel:

**16** “Tomorrow about this time I will send to you a man from the land of Benjamin, and you shall anoint him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He shall save my people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For I have seen my people, because their cry has come to me.”

**17** When Samuel saw Saul, the LORD told him, “Here is the man of whom I spoke to you! He it is who shall restrain my people.”

**18** Then Saul approached Samuel in the gate and said, “Tell me where is the house of the seer?”

**19** Samuel answered Saul, “I am the seer. Go up before me to the high place, for today you shall eat with me, and in the morning I will let you go and will tell you all that is on your mind.

**20** As for your donkeys that were lost three days ago, do not set your mind on them, for they have been found. And for whom is all that is desirable in Israel? Is it not for you and for all your father’s house?”

**21** Saul answered, “Am I not a Benjaminite, from the least of the tribes of Israel? And is not my clan the humblest of all the clans of the tribe of Benjamin? Why then have you spoken to me in this way?”

**22** Then Samuel took Saul and his young man and brought them into the hall and gave them a place at the head of those who had been invited, who were about thirty persons.

**23** And Samuel said to the cook, “Bring the portion I gave you, of which I said to you, ‘Put it aside.’”

**24** So the cook took up the leg and what was on it and set them before Saul. And Samuel said, “See, what was kept is set before you. Eat, because it was kept for you until the hour appointed, that you might eat with the guests.” So Saul ate with Samuel that day.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까? (16절)

What did God instruct Samuel to do when Saul came? (v. 16)

당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Though things were not done according to your plan, have you been led by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방황을 인도하심으로

Leading in the Midst of Wanderings

우리의 삶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좋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방황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환과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예상했던 곳에서 나귀를 찾지 못하자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자 사울은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사는 술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 성읍으로 들어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방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에게 방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이나 습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이를 깨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지내야 할 것입니다.

Many times, our lives take a detour from our plan. When things do not go as planned, we wander and become disappointed.

Saul left home with a servant to look for the lost donkeys for his father. He did not find the lost donkeys where they expected so they wandered here and there. As time passed, they began to worry that Saul's father might worry about him. Then they arrived at the district of Zuph where Samuel lived. The servant said there was a man of God in the town, and he may be able to point them to the right way. So, Saul and the servant entered the town and met Samuel, the man of God.

Samuel knew they were coming. The night before God appeared to Samuel and told him that Saul would come. Samuel delivered God's message to Saul that Saul would be anointed as the first king of Israel. Samuel poured oil on and anointed Saul. As God made Saul wander, Saul was led to God's prophet.

As we sometimes wander, there is God's plan and guidance. People normally move according to their own plan and customs. But sometimes God breaks us down and leads us to His plan. Though sometimes we wander through unexpected paths, we should expect to be led according to God's plan and should not lose hop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09

2023 MAR  
목요일 • Thu

#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Saul Was Anointed  
as K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왕이 될 사람을 제비뽑음으로, 사울이 뽑히게 되고, 이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임을 백성에게 알립니다.

🎵 새436장(통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10:1-12

사무엘상 10장

**1**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2**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으리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으려고 벳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4**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네게는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9**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그 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 Reading Insight

Saul was anointed by Samuel as king. Then Samuel summoned the people of Israel to the LORD at Mizpah, used a lottery to select Saul, and declared to the people that Saul was anointed by God as king.

🎵 Lately the Life of Christ Burst Out Alive in Me!

Meditation

Reading Plan

### 1 Samuel 10:1-12

### 1 Samuel 10

**1** Then Samuel took a flask of oil and poured it on his head and kissed him and said, “Has not the LORD anointed you to be prince over his people Israel? And you shall reign over the people of the LORD and you will save them from the hand of their surrounding enemies. And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the LORD has anointed you to be prince over his heritage.

**2** When you depart from me today, you will meet two men by Rachel’s tomb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at Zelzah, and they will say to you, “The donkeys that you went to seek are found, and now your father has ceased to care about the donkeys and is anxious about you, saying, “What shall I do about my son?””

**3** Then you shall go on from there farther and come to the oak of Tabor. Three men going up to God at Bethel will meet you there, one carrying three young goats, another carrying three loaves of bread, and another carrying a skin of wine.

**4** And they will greet you and give you two loaves of bread, which you shall accept from their hand.

**5** After that you shall come to Gibeath-elohim, where there is a garrison of the Philistines. And there, as soon as you come to the city, you will meet a group of prophets coming down from the high place with harp, tambourine, flute, and lyre before them, prophesying.

**6** Then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ush upon you, and you will prophesy with them and be turned into another man.

**7** Now when these signs meet you, do what your hand finds to do, for God is with you.

**8** Then go down before me to Gilgal. And behold, I am coming to you to offer burnt offerings and to sacrifice peace offerings. Seven days you shall wait, until I come to you and show you what you shall do.”

**9** When he turned his back to leave Samuel, God gave him another heart. And all these signs came to pass that day.

**10** When they came to Gibeah, behold, a group of prophets met him, and the Spirit of God rushed upon him, and he prophesied among them.

**11** And when all who knew him previously saw how he prophesied with the prophets, the people said to one another, “What has come over the son of Kish?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12** And a man of the place answered, “And who is their father?” Therefore it became a proverb,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받았을 때 입니까? (6절)

What did Saul receive when he was changed into a new person? (v. 6)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ish to receive from God to be changed into a new person when you believe in Jesus?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전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He Will Change and Become a New Man

과거의 사고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옛날 사람’이라  
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 아니라 ‘새사람’을 쓰고  
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이 될 만한  
새사람으로 바꾸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그에게 여호와와 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사람이 되  
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는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  
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것은 삼손과 같은 육신의 능력  
도 아니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  
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새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게 하십니다. 새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회를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옛  
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변화되는 ‘새사람’이 되어야 합  
니다.

People who live according to past thought and past customs are  
called “people of antiquity.” But God wants to use “new people” rather  
than “people of antiquity.” God wanted to use Saul as king of Israel.  
God anointed Saul. God wanted to shape and change him to be fit to  
become a king, and He wanted to pour the spirit of the LORD onto  
Saul. God poured the spirit of the LORD onto Saul, gave him a new  
mind, and Saul was changed to become a new man.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Saul, he was prophesying  
with the group of prophets. What God gave Saul was not a physical  
power like He gave to Samson or wisdom to Solomon. God gave him  
the Spirit of the LORD so that Saul could prophesy the Word of God.  
Then Samuel said to Saul, “Once these signs are fulfilled, do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for God is with you.”

A new person is the one who receives a new mind. God bestows  
people with God’s mind and allows them to keep God’s mind and live  
their lives. A new person lives into the Word of God when applicable.  
A believer should not be “a person of antiquity” in the eyes of God but  
should be a “new person” changed to be ready to be used by God  
easil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10

2023 MAR  
금요일 • Fri

## 암몬 족속을 이긴 사울

Saul Defeats  
the Ammonit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위협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사울은 사람들을 모아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로 가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 새368장(통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목상본문

사무엘상 11:6-15

통독본문

사무엘상 11장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와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9**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 Reading Insight

The descendants of the Ammonites threatened to attack Jabesh Gilead. The people of Jabesh asked Saul for help, and Saul assembled the people of Israel, fought the descendants of the Ammonites, and won. The victory gave the people of Israel an opportunity to assemble at Gilgal and officially declared Saul as their king.

## 🎵 Heart Longings

Meditation

1 Samuel 11:6-15

Reading Plan

1 Samuel 11

**6** And the Spirit of God rushed upon Saul when he heard these words, and his anger was greatly kindled.

**7** He took a yoke of oxen and cut them in pieces and sent them throughout all the territory of Israel by the hand of messengers, saying, "Whoever does not come out after Saul and Samuel, so shall it be done to his oxen!" Then the dread of the LORD fell upon the people, and they came out as one man.

**8** When he mustered them at Bezek, the people of Israel were three hundred thousand, and the men of Judah thirty thousand.

**9** And they said to the messengers who had come, "Thus shall you say to the men of Jabesh-gilead: 'Tomorrow, by the time the sun is hot, you shall have deliverance.'" When the messengers came and told the men of Jabesh, they were glad.

**10** Therefore the men of Jabesh said, "Tomorrow we will give ourselves up to you, and you may do to us whatever seems good to you."

**11** And the next day Saul put the people in three companies. And they came into the midst of the camp in the morning watch and struck down the Ammonites until the heat of the day. And those who survived were scattered, so that no two of them were left together.

**12** Then the people said to Samuel, "Who is it that said, 'Shall Saul reign over us?' Bring the men, that we may put them to death."

**13** But Saul said, "Not a man shall be put to death this day, for today the LORD has worked salvation in Israel."

**14**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Come, let us go to Gilgal and there renew the kingdom."

**15** So all the people went to Gilgal, and there they made Saul king before the LORD in Gilgal. There they sacrificed peace offerings before the LORD, and there Saul and all the men of Israel rejoiced greatly.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Saul did not allow the trouble-makers to be put to death. Why? (v. 13)

당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In your life journey, how did God redeem you? And are you happy with that?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The LORD Has Redeemed Us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이라고 공포했을 때 모든 이들이 사울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며 사울의 지도력을 도전하는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사울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고 위협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쳐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합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불량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사울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을 반대한 사람을 죽이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성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At Mizpah when Samuel announced that Saul was anointed as a king by God, not all the people welcomed Saul. Some troublemakers asked, “How can this person save us?” and challenged the leadership of Saul.

God showed the people the ability of Saul to save them through the war. Nahash the king of the Ammonites threatened to gouge out the right eyes of all the people in Jabesh Gilead. The people of Jabesh Gilead went to Saul at Gibeath and asked for his help. Saul was moved by the spirit of God and assembled the people of Israel to save Jabesh Gilead. Then he attacked the Ammonites and defeated them. At this point, the people of Israel accepted Saul as their king. And they wanted to put those troublemakers to death who did not approve Saul as king. To this, Saul said, “No one shall be put to death today, for this day the LORD has rescued Israel.” Then Saul confessed that it was not Saul himself but God who saved Jabesh Gilead. Saul did not use the salvation of God as a tool to put those troublemakers to death. Rather Saul invited them to participate in sharing the grace of salvation of God.

All salvations come from God. Even the power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comes from God. God wants His grace of salvation to be shared with others through the believer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11

2023 MAR  
토요일 • Sat

#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The Last Sermon  
of Samu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사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역했음을 백성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악을 책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 새452장(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12:16-25

사무엘상 12장

**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 Reading Insight

Having anointed Saul as king of Israel, Samuel delivered his last sermon as a judge to the people of Israel. He received confirmation from the people that he had served his ministry as a judge without shame. And he rebuked the Israelites of their disobedience against God and evil deeds and strongly implored them to serve only their God.

## 🎵 Oh, to Be like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2:16-25

1 Samuel 12

**16** Now therefore stand still and see this great thing that the LORD will do before your eyes.

**17** Is it not wheat harvest today? I will call upon the LORD, that he may send thunder and rain. And you shall know and see that your wickedness is great, which you have done in the sight of the LORD, in asking for yourselves a king.”

**18** So Samuel called upon the LORD, and the LORD sent thunder and rain that day, and all the people greatly feared the LORD and Samuel.

**19** And all the people said to Samuel, “Pray for your servants to the LORD your God, that we may not die, for we have added to all our sins this evil, to ask for ourselves a king.”

**20** And Samuel said to the people, “Do not be afraid; you have done all this evil. Yet do not turn aside from following the LORD, but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21** And do not turn aside after empty things that cannot profit or deliver, for they are empty.

**22** For the LORD will not forsake his people, for his great name’s sake, because it has pleased the LORD to make you a people for himself.

**23** Moreover,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ceas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instruct you in the good and the right way.

**24** Only fear the LORD and serve him faithfully with all your heart. For consider what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you.

**25** But if you still do wickedly, you shall be swept away, both you and your king.”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까?

(17-18절)

Why did God send thunder and  
rain to the Israelites?

(vv. 17-18)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세  
상의 헛된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What are the useless idols that  
entice us to turn away from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돌아서지 말라

Do Not Turn Away from the LORD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서 은퇴할 때가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죄된 일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맑은 하늘에 우레와 비가 내리니,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며 회개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허무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뒤돌아 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열심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하겠습니다.

Having anointed Saul as the king of Israel, Samuel announced to the people that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retire as a judge. And he reminded the people of Israel that asking for a king was a sin. As proof Samuel said that the LORD would send thunder and rain. Then thunder and rain poured down from a bright sky, so all the people stood in awe of the LORD and of Samuel. People said, “We have added to all other sins the evil of asking for a king” and they repented.

Samuel proclaimed to the Israelites who were trembling with fear,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Do not turn away after useless idols. They can do you no good, nor can they rescue you, because they are useless.” Samuel reiterated to the Israelites that all other idols except the LORD cannot rescue them because they are useless. Nonetheless people of the world continue to serve useless idols. The wife of Abraham’s nephew Lot looked back at Sodom and Gomorrah as it was falling and turned into a pillar of salt.

Those who believe that God will rescue them will not turn away from God. They will serve God with all their minds. We need to always examine where our sights and our zeal are pointe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12

##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강원 목사 (예수사랑교회, CA)

코로나19로 인해 죽음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곡물 가격과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재해, 방산능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중동,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내전과 갈등은 심각합니다.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던 젊은이들은 목숨을 버리고,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우리가 “독을 투명한 공기와 함께 마신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들의 세계가 독이 침투해 들어온 세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공기 자체가 독인 환경에서는 호흡하는 것이 곧 독을 들이마시는 행위입니다.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사는 것이 곧 죄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 최악이 범람하는 세계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낯뱀을 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장대에 매달린 낯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내부에 침투해 들어온 독을 제거했습니다. 단지 낯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살린 낯뱀이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사실상 낯뱀은 상징입니다. 낯뱀의 치유의 힘,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치유의 능력은 장대에 매달린 낯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낯뱀은 낯뱀입니다. 낯뱀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낯뱀이라는 상징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낯뱀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낯뱀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요단강은 단지 요단강일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치료한 것은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낯뱀은 그냥 구리 조각일 뿐이고, 요단강 물은 도처에 흐른 강물 중



의 하나입니다. 그자체가 내용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상징이 상징의 배후를 잃어버릴 때 우상이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지향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참된 진리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의 되풀이된 우상숭배의 기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뿔뿔을 들었을 때, 그것은 신적 생명력으로 충일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의 빛을 뿜으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정착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뿔뿔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산당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 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뿔뿔을 향해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숴”뜨렸습니다. (왕하 18:4) 이제 우상이 된 그 뿔뿔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5장 3-4절을 보면, 성전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놀라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이 마치 법궤 앞에 절하듯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상을 세워 놔더니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상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는 부족한 걸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의 목이 부러진 것과 다곤의 목이 부러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는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자식을 지켜주는 우상처럼 생각했고, 다곤의 목이 떨어졌다는 것은 호홉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이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과 신관, 교회관은 어떻습니까? 나쁜 종교, 그릇된 종교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치료하는 대신 병들게 하고, 살리는 대신 죽입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교회가 치료하는 종교,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이 아니라 참된 상징,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자리잡은 불뱀들이 극성을 부릴 때, 퍼렇게 빛을 발하는 뿔뿔을 장대에 매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삽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되기 원합니다.

# 13

2023 MAR  
월요일 • Mon

## 사울의 제사와 책망

Worship by Saul  
and the Rebuk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에 위축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갈 때 이를 위급하게 느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드린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13:5-15

사무엘상 13장

**5**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 만이요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 치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 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육백 명 가량이라

## Reading Insight

When Israel was fighting the Philistines, the Israelites were intimidated by the mighty military power of the Philistines. As the soldiers of Israel fled, Saul felt threatened and offered the burnt offering without waiting for the priest Samuel to arrive. Samuel rebuked Saul for making the offering because it violated the rules of God.

## 🎵 Simply Trusting Every Day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3:5-15

1 Samuel 13

**5** And the Philistines mustered to fight with Israel, thirty thousand chariots and six thousand horsemen and troops like the sand on the seashore in multitude. They came up and encamped in Michmash, to the east of Beth-aven.

**6** When the men of Israel saw that they were in trouble (for the people were hard pressed), the people hid themselves in caves and in holes and in rocks and in tombs and in cisterns,

**7** and some Hebrews crossed the fords of the Jordan to the land of Gad and Gilead. Saul was still at Gilgal, and all the people followed him trembling.

**8** He waited seven days, the time appointed by Samuel. But Samuel did not come to Gilgal, and the people were scattering from him.

**9** So Saul said, "Bring the burnt offering here to me, and the peace offerings." And he offered the burnt offering.

**10** As soon as he had finished offering the burnt offering, behold, Samuel came. And Saul went out to meet him and greet him.

**11** Samuel said, "What have you done?" And Saul said, "When I saw that the people were scattering from me, and that you did not come within the days appointed, and that the Philistines had mustered at Michmash,

**12** I said, 'Now the Philistines will come down against me at Gilgal, and I have not sought the favor of the LORD.' So I forced myself, and offered the burnt offering."

**13** And Samuel said to Saul, "You have done foolishly. You have not kept the command of the LORD your God, with which he commanded you. For then the LORD would have established your kingdom over Israel forever.

**14** But now your kingdom shall not continue.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the LORD has commanded him to be prince over his people, because you have not kept what the LORD commanded you."

**15** And Samuel arose and went up from Gilgal. The rest of the people went up after Saul to meet the army; they went up from Gilgal to Gibeah of Benjamin. And Saul numbered the people who were present with him, about six hundred men.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7절)

Why did the Israelite army flee? (vv. 5-7)

당신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 순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What fear do you have? How does this fear affect your will to obey the Word of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두려움

The Panic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당황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양 진영이 싸움을 위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거대한 군사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굴과 수풀, 바위틈, 웅덩이 등에 숨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도 합니다.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더 도망가기 전에 빨리 전쟁을 치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등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임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며 신뢰의 대상임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When people panic, they are shaken and lose the ability to discern right from wrong. Israel had someone to be fearful of and that was the Philistines. When Jonathan attacked the outpost garrison of Philistine, it was the beginning of the war against Philistine.

Both sides set up camps to fight. But when the Israelites saw the mighty military power of Philistine, they lost the will to fight. The Israelites began to hide in fear wherever possible like caves and thickets, rocks, and in pits and cisterns. Some even fled across the Jordan river. Those who did not flee trembled with fear. Even King Saul was overcome with fear. Saul was in a hurry to engage in battle before more soldiers fled and decided to offer the burnt offering to God without waiting for Samuel to arrive, although the priest was the only one authorized to offer the burnt offering. This became an irrevocable sin for Saul.

All people have certain fears. Usually, people have no patience to wait and want things to be done right away. But people must not allow fear to dictate their judgment and action. Even in such fear, we must be able to discern the will of God and the Word of God. God uses these circumstances as an opportunity to discipline believers to depend on God and to make us understand who we must fear most is the LORD. When we fall into fear, we need to depend on God more, and it is a unique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at God is the most important object of our fear and trus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 14

2023 MAR  
화요일 • Tue

## 블레셋을 이긴 사울과 경솔한 맹세

Saul Defeated  
the Philistines,  
but His Vow Was  
Imprude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을 급습하여 교란시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솔한 맹세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범죄케 되고, 아들 요나단을 죽여야 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 새542장(통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

묵상본문

사무엘상 14:6-15

통독본문

사무엘상 14장

**6**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해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8**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1**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3**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이십 명 가량이라

**15**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 Reading Insight

Saul's son, Jonathan made a surprise attack deep into the Philistine camp and caused a disturbance. Saul and Israel fought the Philistines and defeated them. But because of an imprudent vow of Saul, the soldiers of Israel committed a sin and Jonathan faced deadly danger.

## 🎵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4:6-15

1 Samuel 14

**6** Jonathan said to the young man who carried his armor, "Come, let us go over to the garrison of these uncircumcised.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work for us, for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by many or by few."

**7** And his armor-bearer said to him, "Do all that is in your heart. Do as you wish. Behold,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8** Then Jonathan said, "Behold, we will cross over to the men, and we will show ourselves to them.

**9** If they say to us, 'Wait until we come to you,' then we will stand still in our place, and we will not go up to them.

**10** But if they say, 'Come up to us,' then we will go up, for the LORD has given them into our hand. And this shall be the sign to us."

**11** So both of them showed themselves to the garrison of the Philistines. And the Philistines said, "Look, Hebrews are coming out of the holes where they have hidden themselves."

**12** And the men of the garrison hailed Jonathan and his armor-bearer and said, "Come up to us, and we will show you a thing." And Jonathan said to his armor-bearer, "Come up after me, for the LORD has given them into the hand of Israel."

**13** Then Jonathan climbed up on his hands and feet, and his armor-bearer after him. And they fell before Jonathan, and his armor-bearer killed them after him.

**14** And that first strike, which Jonathan and his armor-bearer made, killed about twenty men within as it were half a furrow's length in an acre of land.

**15** And there was a panic in the camp, in the field, and among all the people. The garrison and even the raiders trembled, the earth quaked, and it became a very great panic.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여호와와 그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6절)

To whom does the salvation of God come? (v. 6)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When did you boldly obey the Word of God believing in the salvation of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위성тон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The LORD Will Act in Our Behalf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에 반대되는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군사력이 강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적진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과 함께 한 소년 둘을 가지고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나단이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인지 아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님을 위해 먼저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Though Saul was fearful because of the size of the Philistine army, Jonathan, on the other hand, was not afraid. Jonathan knew how mighty the Philistine army was. Nonetheless he was thinking of attacking the outpost. Jonathan's boldness stemmed from his belief and understanding of how great God is.

Jonathan told his young armor-bearer, “The LORD will act on our behalf.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whether by many or by few.” Jonathan knew that if the LORD acted on their behalf, the salvation of God would be possible with just Jonathan and his young armor-bearer. Jonathan's concern was whether God would act on their behalf or not. If God indeed acted on their behalf, they knew that the salvation of God would come to them and they could attack the enemy's outpost without fear.

What believers should fear is that God will not act on our behalf. God acts on behalf of those who serve God. God is in favor of and is pleased with those who serve God to fulfill His will and will save them. Before we ask and expect God to act on our behalf, we must be the ones to serve God with all our mind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15

2023 MAR  
수요일 • Wed

## 아말렉을 이긴 사울과 불순종

Saul Who Defeated  
the Amalekites  
and  
His Disobedien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살려서 가져 오고, 아말렉 왕까지 포로로 잡아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 새333장(통381장) 충성하라 죽도록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15:10-21

사무엘상 15장

- 10 여호와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 14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 15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 1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 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쁨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 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
-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 Reading Insight

Saul achieves victory in the war against the Amalekites. But in the process, Saul disobeys the Lord's command to completely destroy them by sparing the best of the sheep and cattle and by taking the king of the Amalekites prisoner. Because of this disobedience, the Lord rejects Saul as king.

## 🎵 Be Thou Faithful unto Death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5:10-21

1 Samuel 15

**10**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Samuel:

**11** "I regret that I have made Saul king, for he has turned back from following me and has not performed my commandments." And Samuel was angry, and he cried to the LORD all night.

**12** And Samuel rose early to meet Saul in the morning. And it was told Samuel, "Saul came to Carmel, and behold, he set up a monument for himself and turned and passed on and went down to Gilgal."

**13** And Samuel came to Saul, and Saul said to him, "Blessed be you to the LORD. I have performed the commandment of the LORD."

**14** And Samuel said, "What then is this bleating of the sheep in my ears and the lowing of the oxen that I hear?"

**15** Saul said, "They have brought them from the Amalekites, for the people spared the best of the sheep and of the oxen to sacrifice to the LORD your God, and the rest we have devoted to destruction."

**16** Then Samuel said to Saul, "Stop! I will tell you what the LORD said to me this night." And he said to him, "Speak."

**17** And Samuel said, "Though you are little in your own eyes, are you not the head of the tribes of Israel? The LORD anointed you king over Israel."

**18** And the LORD sent you on a mission and said, 'Go, devote to destruction the sinners, the Amalekites, and fight against them until they are consumed.'

**19** Why then did you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Why did you pounce on the spoil and do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20** And Saul said to Samuel, "I have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I have gone on the mission on which the LORD sent me. I have brought Agag the king of Amalek, and I have devoted the Amalekites to destruction."

**21** But the people took of the spoil, sheep and oxen, the best of the things devoted to destruction, to sacrifice to the LORD your God in Gilgal."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Why did God regret making Saul king over Israel? (v. 11)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How have you obeyed God in a way that you think pleased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후회와 사울의 오해

The LORD's Regret and Saul's Misunderstanding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모든 짐승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상태가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이 한없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사울과 같이 내가 만족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people regret their actions. There was a time that God also regretted God's own action. It was making Saul king over Israel.

God's regret was because Saul did not obey God and failed to do what God commanded. God told Saul to completely destroy the Amalekites and all the animals, but Saul spared the best of the sheep and cattle. Saul's disobedience angered God and caused Samuel to grieve. But surprisingly, Saul thought that he had fulfilled God's command well. So, when prophet Samuel came to Saul, he said to Samuel, "The Lord blesses you! I have carried out the Lord's instructions." When prophet Samuel pointed out to Saul his errors, Saul gave an excuse by saying that he did what he did because he was afraid of the men.

The people of Israel must have been pleased by what Saul did. After all, they won the war and they brought back the best of their plunder. Saul also was pleased because he thought that he had successfully followed God's command. But God was very disappointed with what Saul did.

The obedience that God desires from us is complete obedience, not partial obedience. We should obey God until God is satisfied and pleased rather than when we are satisfie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 16

2023 MAR  
목요일 • Thu

## 왕으로 기름부음 받는 다윗

David is Anointed  
as K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울은 그에게 임한 악령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도록 시킵니다.

🎵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묵상본문

사무엘상 16:4-13

통독본문

사무엘상 16장

**4** 사무엘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 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 Reading Insight

The Lord regrets making Saul king of Israel because of Saul's disobedience. The Lord sends Samuel to anoint David with oil in order to make David the new king of Israel. An evil spirit begins to torment Saul, and Saul calls David to play the lyre for him in order to seek comfort from his torment.

## 🎵 Saviour, More Than Life to Me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6:4-13

1 Samuel 16

**4** Samuel did what the LORD commanded and came to Bethlehem. The elders of the city came to meet him trembling and said, "Do you come peaceably?"

**5** And he said, "Peaceably; I have come to sacrifice to the LORD. Consecrate yourselves, and come with me to the sacrifice." And he consecrated Jesse and his sons and invited them to the sacrifice.

**6** When they came, he looked on Eliab and thought, "Surely the LORD's anointed is before him."

**7** But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look on his appearance or on the height of his stature, because I have rejected him. For the LORD sees not as man sees: man looks on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on the heart."

**8** Then Jesse called Abinadab and made him pass before Samuel. And he said, "Neither has the LORD chosen this one."

**9** Then Jesse made Shammah pass by. And he said, "Neither has the LORD chosen this one."

**10** And Jesse made seven of his sons pass before Samuel. And Samuel said to Jesse, "The LORD has not chosen these."

**11** Then Samuel said to Jesse, "Are all your sons here?" And he said, "There remains yet the youngest, but behold, he is keeping the sheep." And Samuel said to Jesse, "Send and get him, for we will not sit down till he comes here."

**12** And he sent and brought him in. Now he was ruddy and had beautiful eyes and was handsome. And the LORD said, "Arise, anoint him, for this is he."

**13** Then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midst of his brothers. And the Spirit of the LORD rushed upon David from that day forward. And Samuel rose up and went to Ramah.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7절)

What does God look at in a person? (v. 7)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to make yourself more pleasing in God's eyes?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내가 왕이 될 상인가?

Do I Look Like I Will Become a King One Day?

영화 “관상”에 보면 수양대군이 한양의 여러 점쟁이들과 관상쟁이를 불러 모아 자신의 운수를 묻습니다. 그리고 한 관상쟁이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묻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을 가진 사람은 취직이나 연애를 할 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만족이 없는 분들은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마음,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니 그의 외모가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외모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현혹되어 살아가지만 성도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In the movie “The Face Reader,” Prince Soo-Yang gathers different face readers to inquire about his fortune. He asks one of the face readers, “Do I have the face of a king?” Both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 person’s outer appearance mattered greatly to people. When a person has a good appearance, it gives the person an advantage in their job search or social life. For this reason, people who are not happy with the way they look even have cosmetic surgery. But our God is the God who looks at the heart of the person rather than the outward appearance. So, when God is pleased with a person, it is not because of the outward appearance of that person but because of their heart.

When King Saul did not obey God, God decided to make David the next king. God sent Samuel to Jesse because God had chosen one of his sons to be king. There, Samuel began to examine Jesse’s sons. When he saw the first son, Samuel thought that he had the face of a king. But God told Samuel not to look at his outward appearance because God looks at the heart of a person.

Although we cannot see the heart of a person, judging a person by one’s outward appearance is not God’s will for us. While many people today are often impressed by the outer beauty of a person, we as people of faith should place a greater value on the inner beauty of one’s heart. We should focus on making our inner person more pleasing to God, remembering that God looks at the heart of a person.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17

2023 MAR  
금요일 • Fri

## 다윗과 골리앗

David and Golia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이를 보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을 공격하여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 새315장(통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17:41-51

사무엘상 17장

**41**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엽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며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 Reading Insight

A war broke out between Israel and Philistine. The Philistines had a giant warrior named Goliath who threatened and mocked the nation of Israel. But David confronts this giant in the name of God, ultimately bringing down the giant and leading Israel to victory. Through this victory, David gains fame in the hearts of the Israelites.

🎵 My Jesus, I Love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7:41-51

1 Samuel 17

**41** And the Philistine moved forward and came near to David, with his shield-bearer in front of him.

**42** And when the Philistine looked and saw David, he disdained him, for he was but a youth, ruddy and handsome in appearance.

**43** And the Philistine said to David, “Am I a dog, that you come to me with sticks?” And the Philistine cursed David by his gods.

**44** The Philistine said to David, “Come to me, and I will give your flesh to the birds of the air and to the beasts of the field.”

**45** Then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to me with a sword and with a spear and with a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46**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 and I w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And I will give the dead bodies of the host of the Philistines this day to the birds of the air and to the wild beasts of the earth, that all the earth may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47** and that all this assembly may know that the LORD saves not with sword and spear.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you into our hand.”

**48** When the Philistine arose and came and drew near to meet David, David ran quickly toward the battle line to meet the Philistine.

**49** And David put his hand in his bag and took out a stone and slung it and struck the Philistine on his forehead.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 and he fell on his face to the ground.

**50** So David prevailed over the Philistine with a sling and with a stone, and struck the Philistine and killed him. There was no sword in the hand of David.

**51** Then David ran and stood over the Philistine and took his sword and drew it out of its sheath and killed him and cut off his head with it. When the Philistines saw that their champion was dead, they fled.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윗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7절)

Who does David say is in charge of the battle? (v. 47)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니까? When do you call out the name of the Lord and depend on the Lord in your life?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유승찬(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Weapon?

각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만들고 무기로 무장합니다.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그 무기를 믿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블레셋에게는 적국이 두려워할 만한 골리앗 장군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자 했지만, 거인 골리앗의 위용에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이름을 들으며 겁내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려 진격하면서 자신이 의지하는 무기를 밝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의지하는 무기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강력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재물, 폭력이라는 이름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Every nation builds military power and equips itself with weapons for self-defense. Nations that have nuclear weapons rely on these powerful weapons and sometimes use them to threaten other nations. Philistine had a weapon that was powerful enough to terrorize other nations. That weapon was the giant warrior named Goliath. When Israel went to war against the Philistines, they lost all courage to fight when Goliath came and stood before them. The Israelites were so afraid of Goliath that they just cowered in fear even when Goliath ridiculed and mocked the God of Israel. But David was different. David boldly charged at Goliath declaring the ultimate weapon that he had saying,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real weapon that David had was not the sling in his hand but the name of the Almighty God.

What is the powerful name that we have in our life today? In our world today, there are many things that look as powerful as Goliath looked to the eyes of the Israelites. There are times when we cower in fear in the face of authority, wealth, and violence. But when we do, God is mocked. The name of the Almighty God is the true weapon that we need to rely on. God gave us Jesus Christ who is our salvation. When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nd go forth in faith, we, too, will experience victory as David did and live a life that will make the name of our God known in this worl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 18

2023 MAR  
토요일 • Sat

##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질투

Jonathan's  
Friendship and  
Saul's Jealous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블레셋을 이긴 후 다윗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 하며 그에게 왕좌를 빼앗기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을 보호합니다.

🎵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끄리어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18:5-16

사무엘상 18장

**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6**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 없이 떠돌아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 Reading Insight

When David is praised by the people after defeating the Philistines, Saul is jealous of David and fears that he will be deprived of the throne. Saul wants to kill David, but is unsuccessful. Saul's son Jonathan and daughter Michal love David and protect him.

## 🎵 If I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8:5-16

1 Samuel 18

**5** And David went out and was successful wherever Saul sent him, so that Saul set him over the men of war. And this was good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and also in the sight of Saul's servants.

**6** As they were coming home, when David returned from striking down the Philistine, the women came out of all the cities of Israel, singing and dancing, to meet King Saul, with tambourines, with songs of joy, and with musical instruments.

**7** And the women sang to one another as they celebrated, "Saul has struck dow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 thousands."

**8** And Saul was very angry, and this saying displeased him. He said, "They have ascribed to David ten thousands, and to me they have ascribed thousands, and what more can he have but the kingdom?"

**9** And Saul eyed David from that day on.

**10** The next day a harmful spirit from God rushed upon Saul, and he raved within his house while David was playing the lyre, as he did day by day. Saul had his spear in his hand.

**11** And Saul hurled the spear, for he thought, "I will pin David to the wall." But David evaded him twice.

**12** Saul was afraid of David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but had departed from Saul.

**13** So Saul removed him from his presence and made him a commander of a thousand. And he went out and came in before the people.

**14** And David had success in all his undertakings, for the LORD was with him.

**15** And when Saul saw that he had great success, he stood in fearful awe of him.

**16** But all Israel and Judah loved David, for he went out and came in before them.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울왕이 여인들의 노래를 불쾌해하며 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Why was King Saul angry at the womens' songs? (v. 8)

당신은 교회에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jealous of others in your service to the Church? If so, why?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What More Will He Gain Than the Country?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칭송합니다. 사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경계하며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염려와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온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게 되면 내가 지배하는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국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신 커다란 도움이었고, 그의 공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앞장서서 칭찬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서 쓰시던, 낮춰서 쓰시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Because of David's killing of Goliath and leading Israel to victory, the Israelites praise David more than King Saul. When Saul sees this, he speaks warily of David. "What more will he gain than the country?" From then on, Saul was jealous of David and feared that the nation of Israel would be given to David, so he tried to kill David.

Saul's worries and fears came from the illusion that Israel was his own nation. Saul forgot that it was God who established him as king. So, Saul disobeyed God's Word and did what he wanted. He wanted to be a king recognized by the people, not God.

When I forget the sovereignty of God, I try to create a kingdom that I dominate. I regard anyone who seems to be a threat to my kingdom as an enemy. If Saul had lived with the Kingdom of God, David would have been God's great help to Saul and would have praised him more than others for his merits.

Believers are called for the Kingdom of God. He uses them for the Kingdom of God in many ways. Therefore, Christians should be able to rejoice in their use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regardless of whether God exalts or lowers himself.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19

##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어머니라는 분은...

주할 목사(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CO)

18살에 어머니는 저를 낳았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의 시골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그곳에서만 살면서 누군가 찾아오지 않으면 만남이 쉽지 않은 충청도 시골에서 일 찾아 그곳까지 오셨던 아버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어찌면 답답한 시골 농부의 가정을 떠날 수 있었던 유일한 탈출구였기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먹고사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시절에 북에서 홀로 내려와 결혼한 아내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웠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여동생이 그리고 또 일 년 뒤 남동생이, 그리고 삼 년 뒤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추웠던 시절에 이런 4남매를 돌보는 것이 참 힘드셨을 텐데 그것도 아직은 더 청춘을 누리고 젊음의 향기가 풍겨야 할 때에 어머니의 품에는 벌써 4남매가 안겨 있었습니다. 막내를 포대기로 업고 어머니의 두 손에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씩을 잡고 있었고 저에게 줄 손이 없어 저는 어머니의 치마 끝자락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손이 방문 고리에 찌찌 들러붙는 추운 날씨에 여섯 가족 빨래를 위해 얼음을 깨뜨리며 물을 길어 기저귀를 빨고 옷을 빨아 널었습니다. 학교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옷이 안 말라 있으면 아궁이 곁에서 옷을 말리고 차가운 냉기 가득한 옷은 품에 넣어 조금이라도 녹여 입히시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쫓치 한 마리로 여섯 토막을 내서 한 조각씩

먹을 때도 물론 어머니 몫은 정말 누군가의 말대로 머리뿐이었습니다.

혈기 많은 아버지와 부부 싸움은 여느 가정처럼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부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아버지의 화풀이였기에 어머니는 이리저리 도망 다니시느라 자식들 앞에서 다 쏟아내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든지 자식을 최고로 만들려고 그 와중에 저를 서울로 보내 어려운 유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시며 곁에 두고 싶은 자식 떨어뜨려 놓고 그리움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는 교회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펄박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어머니는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고 꿈이고 즐거움이셨습니다. 의사를 꿈꾸던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 주의 종 되는 사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시며 함께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성전에서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아들만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기도 하시다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으니 너는 목사의 길을 가고 나는 기도의 길을 가시겠다고 그렇게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신학 조금 배웠다고 대들기도 하고 어머니 신앙이 잘못됐다고 항변하기도 하는 무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미련을 떨 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로 가셔서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40여 년을 무릎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것을 큰 죄책감으로 느끼며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던 겁니다. 그 기도 덕분에 부족함도 많고 결함도 많고 위험한 순간도, 유혹 받았던 순간도 많았던 40년의 목양길을 이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아 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사랑으로 걸어온 길, 어머니만큼은 못해도 빛진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 20

2023 MAR  
월요일 • Mon

##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Saul Trying to  
Kill Davi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도는 더욱 명확해 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려고 하지만 사울은 이를 듣지 않고 요나단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공을 세우자 사울은 시기하여 다윗을 더 죽이려 하고,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사울로부터 도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19:1-12

사무엘상 19장

- 1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 2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곳에 숨어 있으라
- 3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하고
- 4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 5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 6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 7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 8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 9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 10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 11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 12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 Reading Insight

Saul's intent to kill David becomes clearer. Saul's son Jonathan tries to defend David, but Saul does not listen to him and rebukes Jonathan's reasoning. When David defeats the Philistines experiencing great victories, Saul is jealous and wants to kill David even more. David escapes from Saul with the help of his wife Michal. He then flees to Samuel.

##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19:1-12**

**1 Samuel 19**

**1** And Saul spoke to Jonathan his son and to all his servants, that they should kill David. But Jonathan, Saul's son, delighted much in David.

**2** And Jonathan told David, "Saul my father seeks to kill you. Therefore be on your guard in the morning. Stay in a secret place and hide yourself.

**3** And I will go out and stand beside my father in the field where you are, and I will speak to my father about you. And if I learn anything I will tell you."

**4** And Jonathan spoke well of David to Saul his father and said to him, "Let not the king sin against his servant David, because he has not sinned against you, and because his deeds have brought good to you.

**5** For he took his life in his hand and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 and the LORD worked a great salvation for all Israel. You saw it, and rejoiced. Why then will you sin against innocent blood by killing David without cause?"

**6** And Saul listened to the voice of Jonathan. Saul swore, "As the LORD lives, he shall not be put to death."

**7** And Jonathan called David, and Jonathan reported to him all these things. And Jonathan brought David to Saul, and he was in his presence as before.

**8** And there was war again. And David went out and fought with the Philistines and struck them with a great blow, so that they fled before him.

**9** Then a harmful spirit from the LORD came upon Saul, as he sat in his house with his spear in his hand. And David was playing the lyre.

**10** And Saul sought to pin David to the wall with the spear, but he eluded Saul, so that he struck the spear into the wall. And David fled and escaped that night.

**11** Saul sent messengers to David's house to watch him, that he might kill him in the morning. But Michal, David's wife, told him, "If you do not escape with your life tonight, tomorrow you will be killed."

**12** So Michal let David down through the window, and he fled away and escaped.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6, 12절)  
Who tried to save David from Saul's hand? (vv. 6, 1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동료는 누구입니까?  
Who is an ally of faith that God has granted you?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엄성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팀 킬러 사울

Team Killer Saul

전쟁 중에 아군을 적군으로 잘못 판단해서 아군을 공격하여 사상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사상자 21%, 베트남전에는 39%, 걸프전에서의 52%가 아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라고 합니다 (존 크라카우어, Where Men Win Glory). 이것을 소위 팀킬이라고 말하는데, 적군의 공격보다 아군의 오발탄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사람들은 다윗의 공로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딸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불안해하며 다윗을 더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 창을 던졌습니다. 악령은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할 아군과 싸워서 서로를 망하도록 만듭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팀킬의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편으로 묶어주셨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유익과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적군으로 생각하고 공격합니다. 서로를 분열시키는 일은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화해케 하며 서로를 돌보고 살리도록 하십니다.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 속에,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During wars, allies are often mistakenly identified as enemies, attacked and experience casualties. 21% of the casualties in World War II, 39% in Vietnam and 52% in the Gulf War were casualties from allied attacks (John Krakauer, Where Men Win Glory). This is called a “team kill,” where a wrong allied bullet can be more lethal than an enemy attack.

David won many wars and the people together rejoiced in David's merits. King Saul's son Jonathan, and his daughter, Michal, also loved David and protected him. However, as David's fame grew, Saul became anxious and wanted to kill David even more. When Saul was captured by an evil spirit, he threw a spear to kill David. Evil spirits confuse allies and enemies. So, they fight allies who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make them ruin each other.

Sometimes in the life of faith, there is an aspect of team killing. God has bound them together on the same side, but they attack their ally because they think they are not in the hands of their own interests and inclinations. Dividing one another is what evil spirits do.

The Holy Spirit reconciles people and allows them to care for and keep one another alive. In times of deepening division, Christians will have to live a united life by faith, seeking the help of the Holy Spiri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 21

2023 MAR  
화요일 • Tue

##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

The Oath of David  
and Jonath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확실하고 돌이킬 수 없음을 안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를 알리고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의 사람들을 인자함으로 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새488장(통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20:12-17

사무엘상 20장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13**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 Reading Insight

Knowing that Saul's intention to kill David was certain and irreversible, Jonathan informs David of this and takes refuge. Jonathan asks that when David ascends to the throne, he will treat not only himself but the people of his house with mercy.

## 🎵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20:12-17

1 Samuel 20

**12** And Jonathan said to David,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 witness! When I have sounded out my father, about this time tomorrow, or the third day, behold, if he is well disposed toward David, shall I not then send and disclose it to you?”

**13** But should it please my father to do you harm, the LORD do so to Jonathan and more also if I do not disclose it to you and send you away, that you may go in safety. May the LORD be with you, as he has been with my father.

**14** If I am still alive, show me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that I may not die;

**15** and do not cut off your steadfast love from my house forever, when the LORD cuts off every one of the enemies of David from the face of the earth.”

**16** And Jonathan made a covenant with the house of David, saying, “May the LORD take vengeance on David's enemies.”

**17** And Jonathan made David swear again by his love for him, for he loved him as he loved his own soul.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7절)

How did David love Jonathan?  
(v. 17)

당신은 누구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To whom are you becoming a Jonathan-like frien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한상신 (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위로인 요나단

Jonathan, the Comfort of God

오늘날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서로 고독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이 둘은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좋아했고,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을 넘는 관계였습니다. 그 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윗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고, 그러기에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에게 억울한 취급을 받을 때에 다윗을 변호하고,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요나단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되어준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며 아쉬워하는 이 시대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Today, people live in relationships with millions of people, both online and offline. Ironically, in spite of being in the midst of many, people still feel isolated. That's why people complain that they wish they had a true friend.

David and Jonathan were comforting and supportive of each other. In fact, the two were difficult to be friends with. Nevertheless, Jonathan, the prince, loved David very much, and David loved Jonathan as he loved his 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more than just a human friendship. It was a God-centered relationship. Jonathan helped David even as he rebelled against the commands of his father, Saul, because he saw God was with David and working through him. Jonathan wanted to be on God's side, so he could be with David. Jonathan defended David and was a shield when David was treated with resentment by his father. God's comfort and protection for David flowed through Jonathan.

It is a blessing to be God's comfort and protection to someone. In an age where we regret not having true friends, why not be a good friend, like Jonathan, through whom God's will flow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22

2023 MAR  
수요일 • Wed

## 다윗의 도망과 제사장들의 죽음

The Flight of David  
and the Death  
of the Priest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은 사울을 피해 급하게 뚝으로 도망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  
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아히  
멜렉은 다윗을 돕습니다. 후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성읍에 거하  
는 모든 제사장을 죽입니다.

🎵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21:10-22:5

사무엘상 21-22장

**10**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  
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  
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4**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  
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  
어오겠느냐 하니라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3**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  
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  
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 Reading Insight

David hurriedly flees from Saul to Nob to meet the priest Ahimelek. Ahimelek, unaware that David is being cast out by Saul, helps David. Saul, who later learns that Ahimelek helped David, kills the priest Ahimelek and all the priests who dwell in the city for helping David.

## 🎵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21:10-22:5

1 Samuel 21-22

**10** And David rose and fled that day from Saul and went to Achish the king of Gath.

**11** And the servants of Achish said to him, “Is not this David the king of the land? Did they not sing to one another of him in dances, ‘Saul has struck dow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 thousands’?”

**12** And David took these words to heart and was much afraid of Achish the king of Gath.

**13** So he changed his behavior before them and pretended to be insane in their hands and made marks on the doors of the gate and let his spittle run down his beard.

**14** Then Achish said to his servants, “Behold, you see the man is mad. Why then have you brought him to me?”

**15** Do I lack madmen, that you have brought this fellow to behave as a madman in my presence? Shall this fellow come into my house?”

**1** David departed from there and escaped to the cave of Adullam. And when his brothers and all his father’s house heard it, they went down there to him.

**2** And everyone who was in distress, and everyone who was in debt, and everyone who was bitter in soul, gathered to him. And he became captain over them. And there were with him about four hundred men.

**3** And David went from there to Mizpeh of Moab. And he said to the king of Moab, “Please let my father and my mother stay with you, till I know what God will do for me.”

**4** And he left them with the king of Moab, and they stayed with him all the time that David was in the stronghold.

**5** Then the prophet Gad said to David, “Do not remain in the stronghold; depart, and go into the land of Judah.” So David departed and went into the forest of Hereth.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3절)

What did David who escaped to Achish, the king of the Gath, do in order to live there? (v. 13)

환난과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Who comforted you during times of tribulation and bitterness?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도망다니는 사람들

People Running Away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현재의 왕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이 도망 다니는 것이 억울했을 것이고, 사울에게 언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사백 명 가량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유력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형편 속에 있는 이들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다윗의 위로와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그의 백성으로 주셔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며 그들이 설 수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David was anointed as the king of Israel, but his life was a struggle. He was chased by Saul, the current king. He may have been resentful because although innocent, he still had to flee. He may have been uneasy about the reality that Saul might capture and kill him. David is on the run and flees to the cave of Adullam.

But David wasn't the only one who was being wronged and living a life on the run. When David fled to the cave of Adullam, the people gathered with David. Not only David's family, but all who were distressed, all who were in debt, and all those who were bitter in their hearts were gathered with him. There were about four hundred people who gathered in this way.

God did not send David a powerful man to overcome his difficulty. God sent those in the same condition as David so that they could receive David's comfort and protection. Before God raised David up to be the king of Israel, God gave people in distress and experiencing difficulties to David to care about them and to serve them.

People turn away from people who live alienated from society, but God cares about them. David's heart, like God's, wants to serve and care for them and be a foundation on which they can stan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 23

2023 MAR  
목요일·Thu

## 그일라 성을 구한 다윗

David Who Saved  
the Castle of Keila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약탈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을 구합니다. 다윗의 위치를 파악한 사울이 추격하자 다윗과 그 일행은 그일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추격합니다.

🎵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묵상본문

사무엘상 23:18-29

통독본문

사무엘상 23장

**18**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9** 그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21**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공홀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22**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 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24**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남쪽 마온 광야아라바에 있더니

**25**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위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7**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하마스곳이라 칭하니라

**29**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 Reading Insight

Even though David is being chased by Saul, when the city of Keilah is plundered by the Philistines, he fights to save the people of Keilah. When Saul locates and pursues David, David and his companions leave Keilah and flee to another area, where Saul continues to pursue him.

## 🎵 Simply Trusting Every Day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23:18-29

1 Samuel 23

**18** And the two of them made a covenant before the LORD. David remained at Horesh, and Jonathan went home.

**19** Then the Ziphites went up to Saul at Gibeah, saying, “Is not David hiding among us in the strongholds at Horesh, on the hill of Hachilah, which is south of Jeshimon

**20** Now come down, O king, according to all your heart’s desire to come down, and our part shall be to surrender him into the king’s hand.”

**21** And Saul said, “May you be blessed by the LORD, for you have had compassion on me

**22** Go, make yet more sure. Know and see the place where his foot is, and who has seen him there, for it is told me that he is very cunning.

**23** See therefore and take note of all the lurking places where he hides, and come back to me with sure information. Then I will go with you. And if he is in the land, I will search him out among all the thousands of Judah.”

**24** And they arose and went to Ziph ahead of Saul. Now David and his men were in the wilderness of Maon, in the Arabah to the south of Jeshimon.

**25** And Saul and his men went to seek him. And David was told, so he went down to the rock and lived in the wilderness of Maon. And when Saul heard that, he pursued after David in the wilderness of Maon.

**26** Saul went on one side of the mountain, and David and his men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And David was hurrying to get away from Saul. As Saul and his men were closing in on David and his men to capture them,

**27** a messenger came to Saul, saying, “Hurry and come, for the Philistines have made a raid against the land.”

**28** So Saul returned from pursuing after David and went against the Philistines. Therefore that place was called the Rock of Escape.

**29** And David went up from there and lived in the strongholds of Engedi.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누구를 힘있게 의지하라고 했니까? (16절)

Whom does Jonathan ask David to rely on in strength? (v. 16)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When has it been difficult for you to rely on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

Relying on God with Confidence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 마땅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땅한 말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지만, 육백 명의 일행을 데리고 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발견하면 사울에게 알리고 사울은 매일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아움을 보고 십 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께 힘 있게 의지하게 할 말을 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보다는 확실해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환난이 길어지면 인내하기가 쉽지 않고 소망까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할 때입니다.

When we see others in difficult situations, we sometimes do not know the words of encouragement and comfort that they deserve. There seem to be no words to encourage and comfort David in his current situation.

David tried to escape from Saul, but it was impossible to hide with a group of six hundred men. When the Israelites found David, they notified Saul, who pursued David every day. When David learned of Saul's pursuit, he was in the wilderness of Ziph. Then Jonathan comes to David and his words help David rely on God with confidence. Jonathan said to David, "Do not be afraid. My father's hand will not reach you, You will be king over Israel, and I will be second to you."

There are times when we need to rely on God with strength. Like David, there are times when our desire to rely on God weakens when difficult circumstances persist. At such times, we try to seek worldly ways that seem more certain than God's. But Jonathan goes to David and confirms God's promise that David will be king over Israel. When tribulation is prolonged, it is not easy to endure and it is easy to lose hope. At such times, it is time to trust in God's Word of promise and rely on God with strength.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24

2023 MAR  
금요일 • Fri

## 사울을 살려준 다윗

David Let Saul Liv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군사 삼천 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황무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 쉬는데,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울을 살려주고, 자신이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사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24:1-12

사무엘상 24장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다 하니

**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 길 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겹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 Reading Insight

When King Saul heard that David was hiding in En Gedi, he came to En Gedi with his chosen 3000 men. When King Saul went to the cave to relieve himself, it happened to be the same cave where David and his men were hiding. David could have killed King Saul easily, but he let King Saul live and confirmed that David had no intention to kill Saul.

## 🎵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24:1-12

1 Samuel 24

**1** When Saul returned from following the Philistines, he was told, “Behold, David is in the wilderness of Engedi.”

**2** Then Saul took three thousand chosen men out of all Israel and went to seek David and his men in front of the Wildgoats’ Rocks.

**3** And he came to the sheepfolds by the way, where there was a cave, and Saul went in to relieve himself. Now David and his men were sitting in the innermost parts of the cave.

**4** And the men of David said to him, “Here is the day of which the LORD said to you, ‘Behold, I will give your enemy into your hand, and you shall do to him as it shall seem good to you.’” Then David arose and stealthily cut off a corner of Saul’s robe.

**5** And afterward David’s heart struck him, because he had cut off a corner of Saul’s robe.

**6** He said to his men,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do this thing to my lord, the LORD’s anointed, to put out my hand against him, seeing he is the LORD’s anointed.”

**7** So David persuaded his men with these words and did not permit them to attack Saul. And Saul rose up and left the cave and went on his way.

**8** Afterward David also arose and went out of the cave, and called after Saul, “My lord the king!” And when Saul looked behind him, David bowed with his face to the earth and paid homage.

**9** And David said to Saul, “Why do you listen to the words of men who say, ‘Behold, David seeks your harm’?”

**10** Behold, this day your eyes have seen how the LORD gave you today into my hand in the cave. And some told me to kill you, but I spared you. I said, ‘I will not put out my hand against my lord, for he is the LORD’s anointed.’

**11** See, my father, see the corner of your robe in my hand. For by the fact that I cut off the corner of your robe and did not kill you, you may know and see that there is no wrong or treason in my hands. I have not sinned against you, though you hunt my life to take it.

**12** May the LORD judge between me and you, may the LORD avenge me against you, but my hand shall not be against you.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람 사이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12절)

Who is the one who judges behaviors among human beings? (v. 12)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분은 누가 있습니까?

Who do you respect and revere as the ones who are anointed by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저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보복은 하나님의 몫

Revenge Belongs to God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 원수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이는 사울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고, 다윗이 있는 동굴 속에 들어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는데도 사울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성별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기름부으신 사울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다윗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의심하며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도록 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제사장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선악 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였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몫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울과 같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죄의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선악 간의 판단과 처벌은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If you encounter an enemy, it is so natural to eliminate them. For David, the enemy was King Saul. King Saul tried to kill David even though David did not wrong Saul or anyone else. However, David did not regard Saul as an enemy and did not harm him. Saul chased after David and came to the very cave where David was hiding. Even when David was cutting a piece from Saul's cloak, Saul did not notice. David could have killed King Saul easily, but he did not. David's conscience was even stricken by the fact that he cut a piece of Saul's cloak. The reason why was because King Saul was the one anointed by God. God set apart Saul as a holy one. David did not directly harm King Saul who was the anointed one from God but left all matters in God's hands.

However, Saul's attitude toward God's anointed one was very different from David's. Saul ordered the killing of the priest Ahimelek and 85 other priests of Nob who were accused of giving bread and swords to David and his men. All these priests were anointed by God, but Saul did not feel any guilt when killing them. David did not kill King Saul with his own hands but left the judgment to God. However, King Saul thought he could take revenge and assumed that he could play God. Even though we might have power like King Saul to punish and judge others, we are called to leave the matter of discerning judgment and punishment regarding what is wrong and evil. Let us never forget that we will all be judged by God, and no one is excuse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 25

2023 MAR  
토요일 • Sat

##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Wise Woman,  
Abigai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은 도망 중에 갈멜에 머물면서 나발의 양을 치는 양치기들과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할 때에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며 그를 모욕합니다. 이에 다윗은 나발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결심하였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나발에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 새215장(통354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25:23-35

사무엘상 25장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심이었나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때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시라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 또 네 지혜를 칭찬하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35**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 Reading Insight

David was on the run and stayed in Carmel. He protected and took care of Nabal's shepherds and sheep. David sent his men to request food from Nabal for the exchange of taking care of his sheep and shepherds. However, Nabal refused and offended David. David now planned to kill Nabal, his men, and his whole household. But Nabal's wife responded to David wisely and David did not seek revenge against Nabal.

## 🎵 All for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25:23-35

1 Samuel 25

**23** When Abigail saw David, she hurried and got down from the donkey and fell before David on her face and bowed to the ground.

**24** She fell at his feet and said, "On me alone, my lord, be the guilt. Please let your servant speak in your ears, and hear the words of your servant.

**25** Let not my lord regard this worthless fellow, Nabal, for as his name is, so is he. Nabal is his name, and folly is with him. But I your servant did not see the young men of my lord, whom you sent.

**26** Now then, my lord, as the LORD lives, and as your soul lives, because the LORD has restrained you from bloodguilt and from saving with your own hand, now then let your enemies and those who seek to do evil to my lord be as Nabal.

**27** And now let this present that your servant has brought to my lord be given to the young men who follow my lord.

**28** Please forgive the trespass of your servant. For the LORD will certainly make my lord a sure house, because my lord is fighting the battles of the LORD, and evil shall not be found in you so long as you live.

**29** If men rise up to pursue you and to seek your life, the life of my lord shall be bound in the bundle of the living in the care of the LORD your God. And the lives of your enemies he shall sling out as from the hollow of a sling.

**30** And when the LORD has done to my lord according to all the good that he has spoken concerning you and has appointed you prince over Israel,

**31** my lord shall have no cause of grief or pangs of conscience for having shed blood without cause or for my lord taking vengeance himself. And when the LORD has dealt well with my lord, then remember your servant."

**32** And David said to Abigail,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sent you this day to meet me!

**33** Blessed be your discretion, and blessed be you, who have kept me this day from bloodguilt and from avenging myself with my own hand!

**34** For as surely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who has restrained me from hurting you, unless you had hurried and come to meet me, truly by morning there had not been left to Nabal so much as one male."

**35** Then David received from her hand what she had brought him. And he said to her, "Go up in peace to your house. See, I have obeyed your voice, and I have granted your petition."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윗은 누구를 찬송한다고 했습니까? (32절)

Whom did David praise for sending Abigail? (v. 32)

아비가일과 같이 누군가가 분노로 인해 죄를 짓고자 할 때 이를 중재한 일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Have you ever acted as a mediator and peacemaker to help someone who was about to sin because of their anger?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비가일

God Sent Abigail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모독함으로 다윗이 죄를 짓도록 화나게 만들었습니다(25:14). 다윗은 나발이 소유한 양들을 치는 사람들과 양을 보호해 주었는데, 나발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도리어 다윗의 일행이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인 것처럼 모독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분개하며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를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과 같은 자를 죽임으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고,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이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은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아비가일은 분개하는 다윗을 위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도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분을 내며 서로 공격하며 죄를 짓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성도가 아비가일과 같이 다른 사람의 분을 가라앉히며, 죄를 짓지 않도록 중재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There are unwise people who mislead, ridicule, and provoke others to get upset and sin. Nabal offended David who got upset and sinned (v. 14). David protected Nabal's shepherds and sheep. Not only did Nabal not return the favors but treated David and his men as mere fugitives. David was very angry at Nabal's attitude and planned to kill all males in Nabal's household.

Nabal's wife, Abigail heard this news and journeyed to meet David and his men with plenty of food for them. Abigail begged David not to kill her husband Nabal who was ungodly and unwise. She reasoned that it would be needless bloodshed which would stain David's fame. David complimented Abigail who stopped the unnecessary bloodshedding and revenge. David also praised God who sent Abigail to make peace between David and her family.

Abigail was sent by God to comfort David who was angry and was about to sin by killing many people to avenge Nabal's arrogant attitude. Christians are called to be peacemakers in every situation. Nowadays, people get upset over small things and often attack each other over insignificant matters. As a result, people sin against God with anger, violence, hatred, murder, etc. Christians are called to act like Abigail to calm those who are angry, upset, and can not control their emotion. Let us remember that we are called to become mediators among people who are about to sin against God and others by their own uncontrollable anger.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26

##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나발의 길인가? 아비가일의 길인가?

김정환 목사 (커네티컷중앙연합감리교회, CT)

존 맥스웰 목사님의 <Winning with People>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두 개의 양동이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개는 물을 담고 다니고 또 다른 한 개는 가솔린, 즉 기름을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 불이 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을 쏟아 부음으로 문제를 사전에 꺼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던 문제가 갑자기 폭발하여 결국에는 끝수 없는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문제만 생기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 폭발시키고 커지게 만들어 번져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의 외형이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사람의 생애는 결코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소속된 단체나 공동체는 결코 행복한 단체나 공동체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 흩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문제의 불씨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버려서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단체나 공동체는 행복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단체나 공동체가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두 가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나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이긴 했지만 그들이 선택했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부자였던 나발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다윗은 그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녀서 초라하게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한 떡과 물을 거절할 뿐 아니라 다윗을 “도망하는 종”이라 모욕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영적인 눈’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서 모든 승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다윗을 항상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다윗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누추한 행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드립니다. 나발은 다윗이라는 문제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 문제를 재앙으로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가일은 다윗이라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꿈으로써 다윗의 아내가 되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인 다윗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공동체마다 골치 아픈 이슈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가지고 꼬여있고 얽혀 있는 문제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마침내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 27

2023 MAR  
월요일 • Mon

##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다윗

David Let Saul  
Live for  
the Second Tim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은 지속적으로 사울의 추적을 받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하길 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잠을 잘 때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창 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사울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26:1-12

사무엘상 26장

- 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 2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 3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 가에 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 4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벨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 6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 10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 Reading Insight

David was continually chased by King Saul. When King Saul's soldiers made their camp beside the road on the hill of Hakilah, David entered the camp but did not kill Saul. Instead, he brought out Saul's spear and water jug which were located near Saul's head while Saul was sleeping. David confirmed again that he had no intention to kill Saul through this episode.

## 🎵 Love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Your True Mind

Meditation

Reading Plan

### 1 Samuel 26:1-12

### 1 Samuel 26

**1** Then the Ziphites came to Saul at Gibeah, saying, "Is not David hiding himself on the hill of Hachilah, which is on the east of Jeshimon?"

**2** So Saul arose and went down to the wilderness of Ziph with three thousand chosen men of Israel to seek David in the wilderness of Ziph.

**3** And Saul encamped on the hill of Hachilah, which is beside the road on the east of Jeshimon. But David remained in the wilderness. When he saw that Saul came after him into the wilderness,

**4** David sent out spies and learned that Saul had come.

**5** Then David rose and came to the place where Saul had encamped. And David saw the place where Saul lay, with Abner the son of Ner, the commander of his army. Saul was lying within the encampment, while the army was encamped around him.

**6** Then David said to Ahimelech the Hittite, and to Joab's brother Abishai the son of Zeruiah, "Who will go down with me into the camp to Saul?" And Abishai said, "I will go down with you."

**7** So David and Abishai went to the army by night. And there lay Saul sleeping within the encampment, with his spear stuck in the ground at his head, and Abner and the army lay around him.

**8** Then said Abishai to David, "God has given your enemy into your hand this day. Now please let me pin him to the earth with one stroke of the spear, and I will not strike him twice."

**9** But David said to Abishai, "Do not destroy him, for who can put out his hand against the LORD's anointed and be guiltless?"

**10** And David said, "As the LORD lives, the LORD will strike him, or his day will come to die, or he will go down into battle and perish.

**11**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put out my hand against the LORD's anointed. But take now the spear that is at his head and the jar of water, and let us go."

**12** So David took the spear and the jar of water from Saul's head, and they went away. No man saw it or knew it, nor did any awake, for they were all asleep, because a deep sleep from the LORD had fallen upon them.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과 아브넬이 자신들의 진영에 들어간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한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12절)

Who helped David and Abishai not be noticed by Saul and his men when they entered Saul's camp? (v. 12)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중보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prayed for someone who gave you a hard time, so that the person would realize and repent their faults and wrongs?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최상훈(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간 다윗

David Entered Saul's Camp

나를 원수처럼 대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그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 동굴에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과 삼천 명이나 되는 그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자고 있는 곳에 잠입합니다. 사울에게 접근한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 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온 다윗은 사울을 깨워 자신이 사울을 해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여호와와 뜻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뜻인지를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간 것은 사울을 죽이려 함도 아니요, 단순히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사울을 향한 애정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It is not easy to embrace someone who treats me as an enemy. David was chased by Saul who tried to kill David, but he never lost reverence and care for King Saul. God gave David the perfect chance to get rid of Saul in the cave in 1 Samuel 24. However, David chose to remain a fugitive instead of killing King Saul.

Now God gave David another chance to kill King Saul. David sneaked into King Saul's camp where he settled with his 3,000 chosen soldiers. When David approached King Saul, he only took Saul's spear and water jug which were near sleeping Saul. When David left Saul's camp, he spoke confirming that he had no intention to kill King Saul. David asked Saul to discern whether his intention to kill David was human will or God's will.

David took a deadly risk to enter Saul's camp, not in order to kill Saul nor to prove that David was innocent. David still had reverence and care for King Saul who treated David as an enemy. Instead, David wanted King Saul to repent and turn his way around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and himself.

Jesus required His disciples to have a similar care and reverence. Jesus commanded us not to be hostile to the weak. He also commanded that we must love our enemies as well. Jesus displayed His love and care for even His enemies on the cros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 28

2023 MAR  
화요일 • Tue

##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다윗

David Escaped  
to the Land of  
Philistin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은 지속적으로 사울의 추적을 당하자 블레셋 가드로 망명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시글락 성읍을 주어 살게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으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공하여 약탈합니다.

🎵 새383장(통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묵상본문

사무엘상 27:1-12

통독본문

사무엘상 27:1-28:2

**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5**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10**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겔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겔과 겐 사람의 네겔이니이다 하였더라

**11**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 Reading Insight

When David was constantly chased by King Saul, he escaped to Gath, an area in the land of Philistine. The king of Gath, Achish allowed David and his men to live in Ziklag, a village on his land. While David stayed in Ziklag for 1 year and 4 months, he and his men went up and raided the Geshurites, the Girzites and the Amalekites.

## 🎵 To the Hills I Lift Mine Eyes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27:1-12

1 Samuel 27:1-28:2

**1** Then David said in his heart, “Now I shall perish one day by the hand of Saul.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than that I should escape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Then Saul will despair of seeking me any longer within the borders of Israel, and I shall escape out of his hand.”

**2** So David arose and went over, he and the six hundred men who were with him, to Achish the son of Maach, king of Gath.

**3** And David lived with Achish at Gath, he and his men, every man with his household, and David with his two wives,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of Carmel, Nabal’s widow.

**4** And when it was told Saul that David had fled to Gath, he no longer sought him.

**5** Then David said to Achish,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let a place be given me in one of the country towns, that I may dwell there. For why should your servant dwell in the royal city with you?”

**6** So that day Achish gave him Ziklag. Therefore Ziklag has belonged to the kings of Judah to this day.

**7** And the number of the days that David lived in the country of the Philistines was a year and four months.

**8** Now David and his men went up and made raids against the Geshurites, the Girzites, and the Amalekites, for these were the inhabitants of the land from of old, as far as Shur, to the land of Egypt.

**9** And David would strike the land and would leave neither man nor woman alive, but would take away the sheep, the oxen, the donkeys, the camels, and the garments, and come back to Achish.

**10** When Achish asked, “Where have you made a raid today?” David would say, “Against the Negeb of Judah,” or, “Against the Negeb of the Jerahmeelites,” or, “Against the Negeb of the Kenites.”

**11** And David would leave neither man nor woman alive to bring news to Gath, thinking, “lest they should tell about us and say, ‘So David has done.’” Such was his custom all the while he lived in the country of the Philistines.

**12** And Achish trusted David, thinking, “He has made himself an utter stench to his people Israel; therefore he shall always be my servant.”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Why did David escape into the land of Philistine? (v.1)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입니까?

Have you ever experienced God’s hands holding you? When was it?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송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를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NJ)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 조민호(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I Will Certainly Be Free from His Hands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어디 있던 지 사울에게 알리는 밀고자가 있고,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다윗은 언제 사울에게 잡힐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육백 명의 일행과 함께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합니다.

아기스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형편을 알기에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성읍에 살도록 땅을 내어 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음을 알고 다시는 다윗을 잡기 위해 수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는 아기스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공격하여 약탈한 후에,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는 자신이 유다의 지경에 속한 땅을 약탈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마치 아기스 왕의 손에 붙들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붙잡고 있는 손은 사울의 손도 아니고, 아기스 왕의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손길로 붙잡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God anointed David to be king of Israel. However, David and his men could not stay in the land of Israel any longer. There were spies everywhere in Israel who would have told King Saul where David was, and King Saul chased after David constantly. David was anxious and uneasy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caught by King Saul. Therefore, he, his 600 soldiers, and their families escaped to the land of Gath where King Achish reigned.

King Achish assumed that David and his men would stay under his rule and welcomed them since he knew that David and his men were being chased by King Saul. Achish gave the village of Ziklag. David decided to escape into Philistine land in order to get away from the hands of King Saul. King Saul then heard that David escaped to Philistine, and he stopped chasing after David.

Now David was out of the hands of King Saul, but he and his men were under the reign of Achish, the king of Gath. David must have gained trust from Achish. So, David and his men raided the tribes of Canaan, but he reported the wrong information to Achish that he attacked the land of Judah.

It seemed like David was in the hands of King Achish of Gath. However, the hands who held David were neither King Achish nor Saul, but God's hands. God protected and guided David wherever he went with His mighty hand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 29

2023 MAR  
수요일 • Wed

## 출전을 거부당한 다윗

David Refused  
to Take Part  
in the Figh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이를 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블레셋에 피신한 다윗과 그 일행은 다윗을 의심하는 블레셋 방백에 의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묵상본문

사무엘상 29:1-11

통독본문

사무엘상 28:3-29장

**1**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크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2**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3**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4**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8**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쟁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 Reading Insight

The Philistine armies assembled and set up their camp at Shunem to fight the Israelites. When Saul saw this, he was inquiring of God's will through prophets, Urim and dreams, but there was no answer. Then Saul looked for a female medium who could call the spirit of deceased Samuel. Through the medium, the spirit of Samuel told Saul that he and his sons would die in battle the very next day. David and his men we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battle between the Philistines and the Israelites at that time since they were suspected by the Philistines.

## 🎵 My One Wish, Lord, Is This Alone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29:1-11

1 Samuel 28:3-29

**1** Now the Philistines had gathered all their forces at Aphek. And the Israelites were encamped by the spring that is in Jezreel.

**2** As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were passing on by hundreds and by thousands, and David and his men were passing on in the rear with Achish,

**3** the commanders of the Philistines said, "What are these Hebrews doing here?" And Achish said to the commanders of the Philistines, "Is this not David, the servant of Saul, king of Israel, who has been with me now for days and years, and since he deserted to me I have found no fault in him to this day."

**4** But the commanders of the Philistines were angry with him. And the commanders of the Philistines said to him, "Send the man back, that he may return to the place to which you have assigned him. He shall not go down with us to battle, lest in the battle he become an adversary to us. For how could this fellow reconcile himself to his lord? Would it not be with the heads of the men here?"

**5** Is not this David, of whom they sing to one another in dances, 'Saul has struck dow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 thousands'?"

**6** Then Achish called David and said to him, "As the LORD lives, you have been honest, and to me it seems right that you should march out and in with me in the campaign. For I have found nothing wrong in you from the day of your coming to me to this day. Nevertheless, the lords do not approve of you.

**7** So go back now; and go peaceably, that you may not displease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8** And David said to Achish, "But what have I done? What have you found in your servant from the day I entered your service until now, that I may not go and fight against the enemies of my lord the king?"

**9** And Achish answered David and said, "I know that you are as blameless in my sight as an angel of God. Nevertheless, the commanders of the Philistines have said, 'He shall not go up with us to the battle.'

**10** Now then rise early in the morning with the servants of your lord who came with you, and start early in the morning, and depart as soon as you have light."

**11** So David set out with his men early in the morning to return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But the Philistines went up to Jezreel.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Why were the Philistines upset with King Achish? (v. 4)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Do people see you as a godly person with deep faith?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제자교회, 이영기(NJ)  
주님의 은혜교회, 최준호(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다윗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

People Recognized Who David Was

블레셋이 사람들을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하여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출전을 막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 방백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쳐서 이긴 사람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시 화합하기 위해, 싸움터에서 블레셋과 대적할 것이라고 그 위험성을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들에게 웅망스럽게 달려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기스 왕에게 망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방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고, 자신들과 합할 수 없는 적대자라고 보았습니다. 다윗은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인정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반면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듣는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을지 성찰해 볼 일입니다.

When the Philistines were assembled with other tribes for the battle with the Israelites, King Achish of Gath included David with the Philistine army since Achish trusted David. Now David who was anointed to become the king of Israel would fight against his own people, the Israelites. However, there were people who recognized who David was. They were against the idea of having David in the battle against his own people. They sent David back to King Achish and reported that this was the same person who killed the Philistine's favorite warrior, Goliath and eventually defeated the whole Philistine army. They reported to King Achish that David might have been sent by Saul to attack the Philistines in both ways and David was a dangerous person to include in the battle.

We are not sure of David's intent, but the Philistines recognized who David was. They had experienced that David was the young person who solely relied on God and bravely threw the sling shot to Goliath. They also suspected that David would never completely adopt Philistine even though he and his men now were exiles under King Achish. They knew in their gut that David would never betray the Israelites and he would never become a Philistine. David was recognized by his enemies as a man of God.

Being recognized as a “Godly person who belongs to God” by others is a wonderful thing. It would be shameful if someone says that you do not look like a godly person. We must reflect and determine whether we can be recognized as people of God by other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 30

2023 MAR  
목요일·Thu

## 아말렉 족속에게 보복한 다윗

David Took  
Revenge on  
the Amalekit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과 그 일행이 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 시글락은 아말렉의 약탈을 받습니다. 이에 다윗과 일행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아간 그들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약탈당한 재물들을 모두 회수해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약탈한 물건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목상본문

사무엘상 30:1-10

통독본문

사무엘상 30장

-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겔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 2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 4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 5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 6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 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 9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육백 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 10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 Reading Insight

Amalek takes control of Ziklag while David and his friends are away from the city. The Amalekites were pursued by David and his allies, who brought their captured wives, kids, and looted goods back with them. David presents the elders of Judah with the looted goods from Amalek.

## 🎵 Saviour, More Than Life to Me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30:1-10

1 Samuel 30

**1** Now when David and his men came to Ziklag on the third day, the Amalekites had made a raid against the Negeb and against Ziklag. They had overcome Ziklag and burned it with fire

**2** and taken captive the women and all who were in it, both small and great. They killed no one, but carried them off and went their way.

**3** And when David and his men came to the city, they found it burned with fire, and their wives and sons and daughters taken captive.

**4** Then David and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raised their voices and wept until they had no more strength to weep.

**5** David's two wives also had been taken captive,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the widow of Nabal of Carmel.

**6** And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for the people spoke of stoning him, because all the people were bitter in soul, each for his sons and daughters. But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7** And David said to Abiathar the priest, the son of Ahimelech, "Bring me the ephod." So Abiathar brought the ephod to David.

**8** And David inquired of the LORD, "Shall I pursue after this band? Shall I overtake them?" He answered him, "Pursue, for you shall surely overtake and shall surely rescue."

**9** So David set out, and the six hundred men who were with him, and they came to the brook Besor, where those who were left behind stayed.

**10** But David pursued, he and four hundred men. Two hundred stayed behind, who were too exhausted to cross the brook Besor.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Why did David's men want to stone David? (v. 4)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과 용기가 되심을 경험하였습니까?

When did you experience God's strength and courage for you?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체리힐제일교회, 김일영(NJ)  
코너스톤교회, 정희섭(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여호와를 힘입은 다윗

David Relying on Jehovah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도 큰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다윗과 백성들은 지쳐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이 비극의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며, 그를 돌로 치자고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도했던 다윗을 배척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큰 상처를 받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급한 순간에, 여호와께 힘 있게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과 함께한 육백 명은 그에게 힘이고 용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믿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성도의 힘과 용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낙심하여 실의에 빠진다면 내가 누구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When one experiences deep sorrow, different people respond in different ways. While David and his friends were away from Ziklag, the Amalekites entered and stole their wives, children, and possessions, causing them great sorrow as well. When David and the crowd saw this predicament, they cried until they were worn out and unable to cry any longer.

David's party accuses him of causing this tragedy and demands that he be stoned. David had defended and led them, but they rejected him. David is frequently hurt when he sees the people he loved and spent time with would betray him.

David then fixes his gaze on God rather than on people. And in that desperate moment, he confessed that he took courage in strength to Jehovah. David's strength and courage may have come from the 600 men who were by his side at the time. However, David found his courage at that precise moment when he realized that only God was his true strength.

People encounter and rely on others in life who give them courage and strength. But occasionally, these people become demoralized and harm themselves. Fundamentally, God must be the source of our fortitude and strength. If we become disheartened and disappointed, we should consider from whom we are drawing strength and courag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31

2023 MAR  
금요일 • Fri

#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Death of Saul  
and His Son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뺐산 성벽에 못 박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 새316 주여 나의 생명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무엘상 31:1-13

사무엘상 31장

-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 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 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지매
- 5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 7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 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 10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뺐산 성벽에 못 박으매
- 11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 12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뺐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 13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칠 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 Reading Insight

Israel is soundly defeated by the Philistines when they attack, and Saul and his sons are killed on Mount Gilboa. When the Philistines learned of Saul's passing, they nailed his body to the wall of Beth-shan.

♪ O Lord, All My Life and Dedication

Meditation

Reading Plan

1 Samuel 31:1-13

1 Samuel 31

**1** Now the Philistines fought against Israel, and the men of Israel fled before the Philistines and fell slain on Mount Gilboa.

**2** And the Philistines overtook Saul and his sons, and the Philistines struck down Jonathan and Abinadab and Malchi-shua, the sons of Saul.

**3** The battle pressed hard against Saul, and the archers found him, and he was badly wounded by the archers.

**4** Then Saul said to his armor-bearer, "Draw your sword, and thrust me through with it, lest these uncircumcised come and thrust me through, and mistreat me." But his armor-bearer would not, for he feared greatly. Therefore Saul took his own sword and fell upon it.

**5** And when his armor-bearer saw that Saul was dead, he also fell upon his sword and died with him.

**6** Thus Saul died, and his three sons, and his armor-bearer, and all his men, on the same day together.

**7** And when the men of Israel who were on the other side of the valley and those beyond the Jordan saw that the men of Israel had fled and that Saul and his sons were dead, they abandoned their cities and fled. And the Philistines came and lived in them.

**8** The next day, when the Philistines came to strip the slain, they found Saul and his three sons fallen on Mount Gilboa.

**9** So they cut off his head and stripped off his armor and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land of the Philistines, to carry the good news to the house of their idols and to the people.

**10** They put his armor in the temple of Ashtaroth, and they fastened his body to the wall of Beth-shan.

**11** But when the inhabitants of Jabesh-gilead heard what the Philistines had done to Saul,

**12** all the valiant men arose and went all night and took the body of Saul and the bodies of his sons from the wall of Beth-shan, and they came to Jabesh and burned them there.

**13** And they took their bones and buried them under the tamarisk tree in Jabesh and fasted seven days.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울 왕이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Why did King Saul ask the bearer of the weapon to kill him? (v. 4)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경험은 언제 있었습니까?

When was the last time you humbled yourself to exalt God?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김기천(NM)  
겨자씨한말연합감리교회, 이기용(NV)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

God Who Was Insulted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은 참기가 힘듭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적군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자, 자신이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자신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사무엘에게 청하기를,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이샤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15:30). 사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낮아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조롱하며 성벽에 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수치를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시고 스스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자신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Being shamed and insulted by others is difficult to endure. Saul was also afraid of this. He was fighting the Philistines on Mount Gilboa when he was struck by enemy's arrows, seriously hurting him. Previously, Saul had a high regard for his honor. He asked Samuel to exalt himself before the elders of Israel and Israel so that he could return with him and worship God after hearing Samuel say that God had abandoned him. (15:30) Saul felt humiliated by his appearance to others.

However, Saul was unaware that it was because of him that God was being derided. When Saul disobeyed the command of the God who had appointed him king, God was insulted. God had to endure his shame as the god of Israel when the Philistines mocked the dead Saul and hung him on the wall. God defeated Israel by the Philistines and embarrassed Himself in order to punish Saul and Israel for their transgressions.

God ought to be proud of his people. God will be pleased with a man who can live out His will to the point where he is ashamed of himself in order to exalt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혁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혁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 소그룹 교재

2023  
03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내 마음에 들어온 브닌나



새406장(통464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새408장(통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 여는 질문

나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문 이해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슬펐던 것은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브닌나가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한나에게 빼앗긴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고, 한나는 그것이 괴로워 울며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남편 열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한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

다. 슬프기는 브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닌나의 마음에도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빼앗은 한나가 들어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나를 저주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한나를 괴롭힘으로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브닌나와 다른 점은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마음에 큰 통곡이 있지만 입도 못 열고 속으로 슬퍼하고 통곡해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사정을 듣고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말씀을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던 브닌나를 보내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브닌나가 변한 것도 아니고,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 다시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브닌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사람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 사람에 대한 분노, 장래의 불안, 피해의식 등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로 지음받았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 말씀 속으로

-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였습니까? 그 위로가 소용이 있었나요? (8절)
- 한나가 브닌나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을 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10절)

### 삶 속으로

-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슬픔이나 스트레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슬플 때에 당신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암송 구절 | 사무엘상 1: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 자녀와 나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너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니?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니?

## 방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여는 질문

당신은 여행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 본문 이해

우리의 삶이 내가 정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비록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으려고 하는 나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귀의 행방을 묻고, 낮은 곳까지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사울은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나귀의 행방을 물으면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과 그 사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해 방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곳

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방향의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의 삶의 일상을 벗어나게 하시거나, 내 계획을 틀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고자 하시기에 하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아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귀를 찾아 방향하며 염려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 말씀 속으로

- 나귀를 찾던 사울은 무엇을 걱정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까? (5절)
-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사울은 언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까? (16절)

### 삶 속으로

- 당신이 열심을 내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의 당신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 살아오면서 비록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암송 구절 | 잠언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 자녀와 나눔

네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네 심정은 어떠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으니?

##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 여는 질문

자신의 외모 중에서 가장 자신있어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외모로 인해서 유익을 보거나, 반대로 손해를 본 적은 있습니까?

### 본문 이해

영화 “관상”에 보면 조선의 수양대군이 한양의 여러 점쟁이들과 관상쟁이를 불러 모아 자신의 운수를 묻습니다. 그리고 한 관상쟁이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묻습니다. 이미 왕인 수양대군은 자신이 왕으로 적합한 인물임을 관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외모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외모로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모를 주실 때는 이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점치거나, 서로를 평가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 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시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만드실 때 외모에 따라 뭔가 될 것을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새의 아들 일곱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가장 막내 아들을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이의 외모를 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때로 외모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심(마음, 정신)을 바로 알 수 없고, 그 마음을 아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보여지는 외모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모에 현혹되어져 살아갈 때 성도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에 더 가치를 두고, 이를 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 말씀 속으로

-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7절)
-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무엇에 크게 감동되었습니까? (13절)

### 삶 속으로

- 당신은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한 적은 없었습니까?
-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마음을 봐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을 보여 드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암송 구절 |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 자녀와 나눔

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 드리기를 원하니?

#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아비가일



새341장(통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새453장(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 여는 질문

과거에 당신을 화가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이유로 화가 났고,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 본문 이해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갈멜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은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에 다윗은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 어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과 같아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듣고, “요즈음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며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발은 그동안 베푼 다윗의 선의를 무시했고, 마치 다윗이 주인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나온 종인 것처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은 사백명을 무장시켜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은 나발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25:34).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챙겨 다윗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의 어리석음을 말하며 개입치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과 같은 자를 죽임으로 손에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고 자신이 온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나발을 죽인 일로 인해 나중에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 아비가일은 나발에 대한 다윗의 결심을 돌이키도록 설득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을 막아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

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분을 내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분노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하며, 죄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나 발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 말씀 속으로

-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떠한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고 합니까? (26절)
-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2-33절)

### 삶 속으로

-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중보해 준 사람은 누구 인가요?
- 어떤 사람들이 불화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입니까?

### 암송 구절 | 사무엘상 25: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 자녀와 나눔

너는 주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나니? 네가 화가 나서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중재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니?

# Peninnah Who Came into My Heart



I Have Found Sweet Rest  
I Cannot Tell Thee Whence It Came  
My Peace I Give unto You



## Opening Discussion

Who brings anxiety and sorrow into my heart? Conversely, who makes you feel good when you think about them? Why?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quality of our life depends on who comes into our hearts. Hannah introduces herself to Eli the priest, "I am a woman with a sad heart." Hannah's heart was sad because Peninnah was occupying her heart. Deprived of her husband's love by Hannah, Peninnah cursed and ridiculed Hannah, who could not bear children. Peninnah provoked Hannah so much that Hannah couldn't even eat as she cried because she was deeply hurt. Her husband, Elkanah, comforted Hannah, but that comfort did not come into her heart.

The same is true of Peninnah, who is sad. In Peninnah's heart, Hannah, who had taken away her husband's love, came in and harassed her. So she cursed and attacked Hannah. She tried to comfort her own grief by bullying Hannah. But what makes Hannah different from Peninnah is that she came to God with her sorrow. Hannah had a great wailing in her heart, but she couldn't even open her mouth and had to mourn and weep inwardly. When the priest Eli heard her grief, he said, "Go in peace, I want God to grant you what you have asked." When Hannah heard these words, she believed the words and never again had a glimpse of worry on her face.

Hannah cast out Peninnah, who was in control of her heart, and brought God into her heart. There was no change in her circumstances: Peninnah did not change and Hannah was not pregnant. But after welcoming God in her heart, Hannah never had any



worries again. Hannah entrusted Peninnah to God and also entrusted her son to God. Believing that God would give her the best, God's peace came upon her.

There are many things that take over our hearts today. The cares of the world, hatred of people, envy of others for being well, anger toward people, anxiety of the future, sense of damage and so on all try to occupy our hearts.

The heart of Christians is the temple where God dwells. We are made to serve God. Like Hannah, we can serve Him in prayer. We serve God through worship and praise of God, and we also serve the Lord in the reading of the Word. When God is in our hearts, His peace comes. Nothing around us has changed, but we can be at peace because God is in us.



#### **Into the Word**

- How did her husband, Elkanah, comfort Hannah? Was that comfort helpful? (v. 8)
- What did Hannah do when her heart was tormented by Peninnah? (v. 10)



#### **Into our life**

- What kind of sadness or stress are you experiencing? How are you resolving it when you are sad?
- What are you doing to make sure that God, instead of people or circumstances, can dwell and govern your heart?



#### **Memory Verse | 1 Samuel 1:18**

And she said, "Let your servant find favor in your eyes." Then the woman went her way and ate, and her face was no longer sad.



#### **Sharing with your children**

In what ways do you relieve stress? What can you do to entrust all those concerns to God?

# God's Guidance Through Wandering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Saviour, More Than Life to Me  
Simply Trusting Every Day



## Opening Discussion

Have you ever been lost on a trip by taking the wrong path? How did you feel at the time?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t would be nice if our lives go as we have set and planned, but there are other things that happen. When that happens, we wander and feel anxious because we don't know where to go. Don't worry too much, though, because even though we don't know where we're going, God knows our way. And sometimes God leads us to find His will through our wanderings.

When Saul hears his father's request to find the lost donkey, he goes out of his way with a servant to find the donkey. But they didn't see the donkey they were trying to find. They asked people for the whereabouts of the donkey and they wandered around to strange places to look for them, but in vain. Saul, who had wandered this way, thought that his father might be worried about him and that he should go home. Then the servant speaks to Saul. There is a man of God nearby, so they should go and ask him the whereabouts of the donkey and he will tell them. So Saul and the servant go to Samuel. The prophet Samuel knew in advance that Saul and his envoy would come. The day before he met Saul, God appeared to Samuel and told him that Saul would come. Samuel tells Saul of God's plan that God will make him king of Israel. Saul met God at that time when he was wandering because he could not accomplish what he had planned, and he heard and came to know God's plan for him.

There are times in our lives when we are faced with wanderings when we do not know what to do. Some are unable to break free, which may be even worse. However,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if you find God there, you will discover God's plan revealed through the process of wandering. God sometimes wants to take me out of the routine of my life or to twist my plan and lead me to God's plan. Therefore, even if our plan does not come to pass, we should live in search of the Lord in anticipation of God's leading. The life of a believer is not a life of wandering in search of a donkey and being anxious. A Christian is someone who believes in God's good will and plans for me in any situation and lives according to God's Word.

#### Into the Word

- What caused Saul, who was looking for a donkey, to worry and question whether he should return home? (v. 5)
- What was God's plan for Saul? When did Saul hear of God's plan for him? (v. 16)

#### Into our life

- Were there any things that you zealously planned but still should have made other choices because they didn't come to pass? What was your feeling at that time?
- What are some things in my life that I can confess that even though my plan did not come true, it was God's plan and guidance?

#### Memory Verse | Proverbs 19:21

Many are the plans in the mind of a man, but it is the purpose of the Lord that will stand.

####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do you feel when what you have planned is not fulfilled? Why does God sometimes seem to prevent people from fulfilling their plans?

# Do I Look Like I Will Become a King One Day?



Take Time to Be Holy  
When We Walk with the Lord  
Create in Me a Clean Heart



## Opening Discussion

Which part of your appearance do you feel most confident in? Have you experienced benefits or disadvantages due to your appearance?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n the Korean movie, "The Face Reader," Prince Soo-Yang asked many fortune tellers to read his face and tell him his fortune. He asked one fortune teller if he would be a king of Joseon one day. He was already the King of Joseon and he wanted to confirm his destiny as king with others.

We always care about our appearance. Some people think their appearance determines their destiny. Some people have plastic surgery for a more desirable appearance. God gave each of us our own unique appearance but not for fortune tellers to foretell our futures nor to judge each other. God proved this when prophet Samuel anointed David. God only told Samuel that the next king of Israel would be chosen among the sons of Jesse. When Samuel saw the first born of Jesse, Eliab who was so fine with his appearance, Samuel automatically assumed that Eliab was the one God would anoint. However, God said to Samuel to not consider someone's appearance or height as the sign of God's favor, since God had rejected Eliab already. When God made us with our own appearance, it was not for conditions to be predestined. God cares about our heart much more than the sum of our appearance and outside. Samuel viewed all seven sons of Jesse, but God did not indicate that any of them was fit for His anointment. Samuel asked Jesse if he had more sons. There was the youngest one, David who was in the field and watched the sheep while praising God. David was called in and he

was anointed to be the next king of Israel since God cared about David's heart. Nowadays, people care mainly about appearance and judge others according to their appearance. Sometimes, people can be mistreated because of their appearance. Even though it may take a long time or even be impossible to know the inside of someone's heart (mind & spirit), we are called to never judge others only by their appearance. That is against God's will. Even though the world continues to judge others by their appearance, Christians are called to focus more on the heart of others and to try to understand others by their hearts. Since God cares about what's inside our hearts, we are invited to cultivate our spirit, mind and heart beautifully so that God is pleased by us.

### **Into the Word**

- What does God care most about in us? (v. 7)
- What greatly moved David when he was anointed by the prophet Samuel? (v. 13)

### **Into our life**

- Have you ever been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your race and skin color? Or have you ever had any prejudice towards others primarily due to their appearance?
- Do you want God to look into your heart? What kind of effort do you put to have God see your heart?

### **Memory Verse | 1 Samuel 16:7**

But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for I have rejected him.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people look at. People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when you see others? What beautiful side of you do you want to show God?

# God Sent Abigail



Jesus, I My Cross Have Taken  
More About Jesus Would I Know  
Pour Your Heart into My Heart (Se to Olhares, Senhor)



## Opening Discussion

Have you ever had anyone upset you in the past? What was the main reason for getting upset and how did you respond to that person with your anger?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are people who have a tendency to provoke others to get angry and sin. Nabal in our scripture today was that kind of person to David. When David and his men stayed in Carmel, they protected Nabal's shepherds and sheep. When Nabal and his people were shearing their sheep, David requested that Nabal provide food for him and his men. There was a custom in ancient Israel that people provided feast food to others while they sheared their sheep. However, Nabal refused David's request and commented, "Many servants are breaking away from their masters these days. Why should I take my bread and water, and the meat I have slaughtered for my shearers, and give it to men coming from who knows where?" Nabal ignored previous favors which David gave to his household, treated David like a runaway servant and made offensive comments.

David assembled 400 armed men and approached Nabal's household after hearing his offensive comments. David decided to kill not only Nabal but all males in his household (v. 34). Nabal's wife Abigail quickly prepared enough food and went to meet David. Abigail begged David to not kill Nabal and his family saying how unwise and arrogant Nabal was. Abigail also mentioned that it would be unnecessary blood shedding if David killed Nabal, since Nabal was not worthy of David's time and effort. According to Abigail, Nabal was a very unwise person who did not deserve attention. She asked David to see Nabal from God's perspective. Abigail was certain that God sent her to David so he would not

revenge nor shed the blood of Nabal. Abigail appealed that David would be the next leader of Israel and he really did not have to burden himself with the raid on Nabal's family due to Nabal's stupidity. David appreciated Abigail's wisdom and bid blessings on her since Abigail stopped the unnecessary raid. David praised God who sent Abigail to him to stop the unnecessary violence of revenge.

People today get angry over small things and commit wrong judgements and responses due to their anger. Wise people will not be driven by anger. We all need people like Abigail who was a peacemaker from God. She is a good model for us to think and reflect on our plans and actions from God's perspectives. As there are more people like Nabal, we are called to be like Abigail to mediate situations so that others do not sin against God.



#### **Into the Word**

- According to Abigail, what did God want to prevent by sending her to David? (v. 26)
- What specific things did David praise about God in verses 32–33?



#### **Into our life**

- Who has interceded for you or advised you from making bad decisions or doing wrong things?
- What kind of things can you do for people who do not get along and stay in tension and discord?



#### **Memory Verse | 1 Samuel 25:33**

May you be blessed for your good judgment and for keeping me from bloodshed this day and from avenging myself with my own hands.



####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do you usually get upset? When you are angry, who can protect you from doing wrong things or mediate so that you do not make unwise decisions?

## MISSIONARY OF THE MONTH

*LEE,  
SUNG II*



Country

**Fiji**

Advance

**#3022596**

Serving At

**Methodist Lay  
Training Center**

Home Country

**South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Contact info

**sungillee@  
umcmmission.  
org**

The Rev. Sung II Lee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a lecturer and academic advisor in theology and ministry at the Methodist Lay Training Center, Nausori, Fiji Islands.

The center is part of the overall program of the Methodist Church in Fiji to develop a pool of lay leaders to undertake different ministry and missional emphases. The program complements Global Ministries' leadership development focus.

The Methodist Church in Fiji is an important partne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lmost two-thirds of Fijians are Methodists, as Methodism has left a deep imprint in the cultural, religious and social norms of Fijian society. The links between Global Ministries and the Methodist Church in Fiji were strengthened with the placement of missionaries at the Davuilevu Theological College in Nausori, Fiji, and the recruitment of a Fijian youth for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With the recent departure of missionaries who were teaching at the Davuilevu Theological College, the Methodist Church in Fiji submitted a request for Global Ministries to replace them, but for one of the new missionaries to be assigned to the Methodist Lay Training Center. Currently, the center awards a diploma in lay ministry, but a goal is to offer a bachelor's degree.

Rev. Lee's career has blended pastoral work with missions and missiological education. With a passion for missions, he is energized by the opportunity to motivate others in missional vision. He has taught and ministered around the world, most recently in Dominica, Nepal, Thailand, Malaysia, Senegal, Ukraine, and India and, earlier in his career, the Philippines and Myanmar. His global exposure has al-



lowed him to develop a strong network of partners in mission and broadened his perspective of teaching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I have found," Rev. Lee said, "that the true calling is to enjoy intimate fellowship with the Lord, who called me into fellowship with God. In this sense, my ministry and missionary call is to help people I meet and serve to have the living, personal and intimate fellowship I enjoy in the Lord."

"As an ordained pastor," he continued, "I believe that Christ has given pastors to his church for equipping of the saints unto the work of ministry, unto the upbuilding of the body of Christ (Ephesians 4:11-12). Thus, I will help members stand on the promise of the word of God,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and walk with the Lord in their daily lives."


Born in Seoul, South Korea, Rev. Lee grew up in a Methodist family and, since childhood, had a vision of becoming a missionary. He earned a Bachelor of Theology degree from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3, and a Master of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of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6. He was ordained as a full member of the South Annual Conference, Korean Methodist Church, in 1986.

"I knew the importance of the disciples who transform the world," Rev. Lee said. He served Korean churches for 13 years as an ordained pastor, military and hospital chaplain, and missionary to the Philippines.

He then earned a Doctor of Ministry degree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Manila, Philippines, 1994; Master of Sacred Theology, Drew University, Madison, New Jersey, 1998; and Doctor of Missiology, E. Stanley Jones School of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Asbury Theological Seminary, Willmore, Kentucky, 2007.

Still determined to become a Global Ministries missionary, Rev. Lee recalled, "I could not quench the burning desire given me by the Lord to stand again on the mission field. I served the Lord and his flocks as an immigrant pastor, in a bicultural family ministry and as a seminary lecturer."

Prior to his present assignment, Rev. Lee was the pastor of three New Jersey congregations: Bethany United Methodist Church, Wayne (2004-08); Livingston Korean UMC, Livingston (2008-13); and Appenzeller Memorial Nairi UMC, Woodland Park (2013-19). He took a sabbath year as a nonresidential and itinerant missionary, traveling to nine seminaries in the Philippines, Malaysia, Thailand, India and Nepal, where he taught missiology and evangelism, Bible study and preaching to pastors and lay leaders.

Rev. Lee's wife, the Rev. Jungae Lee, is the pastor of Livingston Korean UMC. They are the parents of two adult children, Wooju and Peace. 

# 인생의 광야가 꽃처럼 피어나리라



이진희 목사  
(웨이코교회,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의 저자)

데스 밸리(Death Valley)는 미국에서 가장 메마른 곳입니다. 가장 뜨거운 곳이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화씨 1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해수면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와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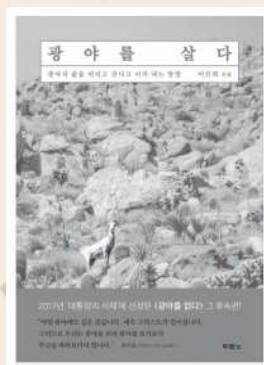
지난 2016년, 데스 밸리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온 광야가 꽃으로 뒤덮인 겁니다. 이는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꽃들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그때 못 보면 10년 후에야 볼 수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다녀왔었습니다.

그전 해 10월에 비가 많이 왔고 또 그해 봄에 비가 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만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해 10월에 내린 비는 광야를 적셔주었구요. 그해 봄에 내린 비는 씨앗들이 발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씨가 터질 즈음에 비가 너무 적게 오면 씨가 말라서 죽고 너무 많이 오면 썩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또 비가 적당히 와서 싹을 쑥 내밀었는데 날씨가 추우면 얼어 죽고 맙니다. 광야에서는 꽃 한 번 피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야생화들이 피어납니다. 들에 피는 꽃들은 저절로 피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드시 핍니다. 그러나 광야에 피는 꽃들은 저절로 피는 꽃들이 아닙니다. 죽을힘을 다해 피어난 꽃들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이를 악물고 피어난 꽃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름답다고 하기보다는 경외스럽다고 해야 할 겁니다. 생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해줍니다.

메마른 땅에서 뜨거운 땅에서 몇 년이고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비가 씨앗을 촉촉이 적셔주면 이때다 하고 씨를 터뜨리고 고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짧은 시간 동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인생의 광야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피는 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주간이나 길면 한 달 안에 다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시도 있습니다만, 광야에 피는 꽃들은 1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기다렸다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에 악어가 산다고 합니다. 사막에 무슨 악어가 있단 말일까요? 옛날에는 그곳이 늪이나 호수였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악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대초원 지대였었고 늪지대였었는데, 언젠가부터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년, 200년, 500년 비가 오지 않자 사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막에 사는 식물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지 않으니까 다 비틀어지고, 가시가 솟아나고, 양상하고, 다 말라버리고... 제대로 된 나무가 없습니다. 꽃을 피우거나 열매 맺는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사막에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 가시가 많습니다. 잎이 넓으면 증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좁히고 좁히고 좁히다 보니까 두꺼워지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잎이 가시가 된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막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비가 내릴 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비가 내리는 광야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면 피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비를 맞았습니다. 나의 시든 영혼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광야가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광야가 춤을 춥니다. 광야에 꽃이 핍니다. 아니 광야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사 35:1-2)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호 14:5)

이사야 예언자는 광야에 꽃이 피는 것처럼 메시야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순


히 광야에 꽃이 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광야에 꽃이 피어날 것이라가 아니고 광야가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것과 광야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은 땅에서 꽃이 피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땅 자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꽃처럼 피어나리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다니까?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내 인생의 광야가 꽃처럼 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광야와 같은데, 그 비즈니스가 꽃처럼 활짝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광야와 같은데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가고 있는데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렐 로버츠(Oral Roberts) 목사님이 대학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학을 세우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대학을 세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리조나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사막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백만 명 이상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학교가 털사(Tulsa)에 있는 Oral Roberts

University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광야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한국교회사 66가지 명장면들!

### 03. 선교사의 ‘사랑 씨앗’ 김규식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가 한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정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언더우드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국 허락을 받았고, 그가 내한한 지 3일 만에 제중원(후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

또한 언더우드는 정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무상으로 신학문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1년이 지난 1886년 봄, 언더우드는 자기 집 옆 건물을 하나 얻어서 고아 학교를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일종의 고아원이며 동시에 학교였다. 언더우드는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모아서 보살펴 주면서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주었다. 이 학교가 발전하여 오늘날의 경신학교가 된 것이다.

언더우드가 이 고아학교에서 보살펴 주고, 가르친 사람 가운데 유명한 독립운동가요,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던 김규식 박사가 있다. 원래 변갑이라고 불렸던 김규식은 오갈 데 없는 고아였다. 김규식의 아버지는 원래 양반으로 관직에 있었는데 정치적 사건으로 역적으로 몰려 귀양을 갔고, 그의 어머니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작은아버지들은 생활이 궁핍해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언더우드가 세운 고아원으로 김규식을 데려왔던 것이다.



언더우드 학당 시절(1888년 경, 맨 앞줄 가운데)

하지만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이 아이는 친척들에게 보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몹시 아픈데도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는 분유와 약을 들고서 아이를 찾아갔다. 찾아가서 보니 아이는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것을



편집자주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를 빛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성부 언더우드 학당에서 촬영한  
4~8세 무렵의 김규식

달라고 필사적으로 울부짖으며 벽지를 뜯어내어 삼키려고까지 하였다. 언더우드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다른 선교사들과 의사들은 반대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죽게 되면 모든 책임을 언더우드 당신이 져야 할지 모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이 아이를 데려왔고 극진히 간호하였다.

결국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어린 김규식은 빠른 속도로 영어를 배웠다. 언더우드는 김규식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어 1903년 미국의 르노크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듬해에는 프린스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05년 나라가 어려울 때 그는 귀국하여 언더우드와 함께 민족과 복음을 위해 일했다.

김규식은 경성 YMCA 총무, 경신학교 교감,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는데, 이 모두 언더우드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김규식은 언더우드가 세운 새문안교회의 장로였으며, 1912년 한국장로교회가 처음으로 총회를 조직하였을 때 총대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때 총회장은 언더우드였다.

그 후 1913년 김규식은 망명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을 주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정계를 은퇴하였다. 김규식은 1950년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가 만포진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규식(1918)

# 유성준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09

## 세이비어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메뉴얼 1

### 1. 세이비어교회의 흠어져 있는 신앙공동체들

현재 세이비어교회의 구조는 10개의 작은 독립교회들인 신앙공동체(Faith Community)로 구성된 흠어진 공동체이다. 한 교회에서 시작된 공통된 역사와 비전을 가진 각 교회들은 각기 연관되어 동질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훈련과 사역들을 나눈다. 각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독특한 지역적 표현들이다. 교회들은 누구나 그들의 예배와 훈련 모임들을 가지고 공동체의 다른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 지교회 형태의 10개의 사역공동체들(Faith Community)

#### 1) 생명의빵교회(Bread of Life Church)

생명의빵교회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삶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법들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이다. 구체적인 지역과의 관계들을 통해, 그리고 큰 범위에서 교회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교회는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새로운 경제적 활동과 구조들을 지원한다.

교회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신만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 보호하고, 자가 안전을 도모하는 문화의 방식에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재정 사용에 관한 “신앙과 재정 네트워크”, 워싱턴 디시 남동쪽 게토 지역에 새롭게 시작한 “회복카페” 사례들이 있다.

- Worship : Thursdays at 7:00 p.m.
- The Potter's House, back room, 1658 Columbia Road NW, Washington, DC 20009
- Contact : Mike Little, mike@faithandmoneynetwork.org 전화) 240.606.2282

## 2) 데이스프링교회(Dayspring Church)

데이스프링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는 메릴랜드 저먼타운의 데이스프링 침묵수양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교회 구성원들은 예배와 공동체 생활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 있다. 각자의 소명에 근거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존중하며,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증거 사역과 깊은 내면의 기도 생활과 침묵과의 연합을 추구한다.

“우리는 침묵과 관상기도와 관상적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을 돌보고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일한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비폭력을 증거한다. 그리고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삶의 축복과 도전의 나눔을 소중히 여긴다.”

- Worship: Sundays at 10:00 a.m. From June to September, we worship at the Pavilion in the woods at Dayspring. During the rest of the year we meet in the Farmhouse.
- Dayspring Farm and Retreat Center
- 11301 Neelsville Church Road, Germantown, Maryland
- 전화) 301.515.4399      • Website: [www.dayspringchurchmd.org](http://www.dayspringchurchmd.org)

### 3) 제8일 신앙공동체(Eighth Day Faith Community)

“제8요일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성경적 7일을 넘어 창조를 지속해 오신다는 믿음에서 취해진 것이다. 창조의 제8일은 우리가 현재 이끌어 가는 삶이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신적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서 정의와 공평의 통치를 창조해가는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8일 신앙공동체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그의 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돌보고 정의롭게 하는 견고한 헌신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의 넘치는 사랑에 응답하게 하신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에 구체적으로 함께 연합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행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서로를 지지하며,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경청한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방식과, 믿음의 공동체를 관상하며 하나님과 피조세계 전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있음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삶에 참여한다.”

- Worship : Sundays at 10:00 a.m.
- The Festival Center, 1640 Columbia Road NW, Washington, DC 20009
- Website : [www.8th-day.org](http://www.8th-day.org)

### 4) 축제교회(Festival Church)

“회복이 복음의 중심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문화 간, 다세대 간의 갈등이 기도로 정화되고, 은혜에 기초하여 개방되는 견고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부서지고 취약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연령이나 능력이나 인종이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 Worship : Mondays at 6:00 p.m.
- The Festival Center, 1640 Columbia Road NW, Washington, DC 20009
- Contact : Cindy Martens, [cmartens\\_dc@yahoo.com](mailto:cmartens_dc@yahoo.com), 202.422.3033;  
Ted Smith, [smiththeo@gmail.com](mailto:smiththeo@gmail.com), 전화) 240.393.5955



##### 5) 예수친구들교회(Friends of Jesus Church)

“우리의 소명은 전인적인 치유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에서 이 소명을 이해하는데, 기도와 관상을 통한 내적 여정과 세상에서의 섬김을 통한 외적 여정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존재와 행위를 연합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것을 깊이 배우며, 지역적인 또는 세계적인 문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추구한다.”

- Worship : Thursdays at 5:30 p.m. A light supper is served.
- The Festival Center, 1640 Columbia Road NW, Washington, DC 20009
- Contact : Harold Vines, harold310@verizon.net, 전화)443.315.3168

##### 6) 희년교회(Jubilee Church)

“희년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교회 본질로 삼는다. 우리는 성경과 예수의 삶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관해 드러내는 것에 집중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에 헌신하며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섬기는 지도자로서 모두를 위한 정의와 인권을 성취하는 일, 인종차별과 빈곤, 물질주의와 군사주의를 끝내야 하는 도전 앞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견고한 영적 가족이다. 우리는 검소한 삶을 사는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 Worship : Wednesdays at 6:00 p.m. A light supper is served.
- The Potter's House, 1658 Columbia Road NW, Washington, DC 20009
- Contact : Kurt Finsterbusch, kurt@socy.umd.edu, 전화)301.570.9597

##### 7) 새공동체교회(New Community Church)

새공동체교회는 산상수훈 특히 팔복의 말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부르심과 비전

의 전통 속에 있는 회복과 부활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큰 비전과 다양한 멤버십, 지역과 함께하는 친근한 방식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을 개인적이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구현하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행위에 두는데 헌신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아주 격렬하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뒤섞여 있는 지역에서 성경적인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로서 1982년에 시작되었다.”

- Worship : Sundays at 11:00 a.m. Adult Sunday School at 10:00 a.m.
- Children’s Sunday school and daycare are offered during the sermon.
- 614 S Street NW, Washington, DC 20001
- 전화) 202.332.0220      • Website : [www.newcommunitychurchdc.org](http://www.newcommunitychurchdc.org)

#### 8) 구도자교회(Seeker’s Church)

“우리의 소명은 구도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매주 성경적인 믿음에 뿌리를 둔 예배로 모이며,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이해하기 위한 공통의 헌신을 확장하는 것이다. 서로의 사명과 진심으로 세상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구도자들은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으나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도자들의 의식을 깨우고 설교와, 예전의 리더십, 창조적 예배 형식, 구제, 선교 그리고 다른 믿음의 행위들에 관한 새로운 은사가 들어설 열려있는 공간을 주는데 헌신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의 남녀들과 어린이들 구도자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 Worship: Sundays (with Sunday School for children/youth) beginning at 9:30 a.m.
- 276 Carroll St. NW, Washington, DC 20012 (accessible by Metro on the red line-Takoma stop)
- 전화) 202.829.9882      • Website: [www.seekerschurch.org](http://www.seekerschurch.org)




## 9) 그리스도의 집(Christ House)

남성 노숙자들을 위한 24시간 체류시설과 환대의 집인 그리스도의 집 공동체는 매주 주간 중 식탁교제, 그리고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한다. 공간의 제한 때문에, 목요일 저녁 식탁교제를 위해 사전에 전화 요청을 해야 한다. 주일 아침은 사전 요청이 필요 없다.

- Worship : Sundays, 9:00 a.m.
- 1717 Columbia Road NW, Washington, DC 20009
- 전화) 202.328.1100      • Website: [www.christhouse.org](http://www.christhouse.org)

## 10) 그리스도의교회, 지금 즉시(Church of Christ, Right Now)

“그리스도의교회, 지금 즉시”는 상식적인 교회가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중독자들을 위한 12단계 회복그룹처럼 보인다. 우리 멤버들은 마치 종려주일의 어린 나귀처럼 특별히 지명받은 교도소 출소자와 교정선교에 관심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수많은 배경들, 종족들과, 인종들과, 계급들과, 연령들과 인생 경험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연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을 믿는다. 그리고 교회공동체는 전체 크리스찬의 세계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워야 한다고 믿는다. 정의 위해 불의를 개혁하는 교정선교 사역은 ‘사랑하기 위한 힘’이라고 일컫는다. 지역적으로 우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녀를 지원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범법자들의 악순환을 생산하는 교도소 체계에 반대한다.” 

- Worship : Tuesdays and Wednesdays, 4:30 p.m., and Thursdays, 7:00 p.m.
- The Festival Center, 1640 Columbia Road NW, Washington, DC 20009
- 전화) 202.387.8001      • Website: [Website: www.churchofchristrightnow.org](http://www.churchofchristrightnow.org)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버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버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버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십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 속을 지나, 주님의 은혜 속으로...

천원옥\_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다 보니 가끔은 먼 외곽지역, 낯선 동네로 집을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Freeway에서 내려, 긴 local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Red light에 green light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남자 같으나, 하이힐을 신은 키가 큰 사람이 나타나더니, green light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나를 향해 계속해서 총을 쏘는 시늉을 합니다. 뭐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진짜 총을 꺼내 나를 향해 겨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차도 별로 없고 저는 너무나 무서워 그를 쳐다볼 수는 물론 없고, 온몸이 공포에 조여 왔습니다. 그렇다고 red light에 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요즘 아시안 증오범들이 많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green light로 바꾸어 주세요!” 외치고, 또 외치고. 그러나 신호등은 왜 그리 안 바뀌던지. Red light는 계속되고, 울고만 싶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드디어 green light를 보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손살 같이 차를 달려 조용한 곳에 차를 멈추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쿵덕쿵덕 거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무서운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한동안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귀가 따갑게 들었던만, ‘저런 인



간을 내가 과연,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해, 못해'하면서 입으로는 중얼 중얼 거리면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이 찢기시고, 온갖 조롱, 멸시받으시며, 피를 흘리셔야 했던,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꺼번에 내게 몰려왔습니다. 몸서리치게 무섭긴 했지만, 총을 겨

눠 쏘는 시늉만 한 그 사람. '정신이 온전 치가 많았을 거야? 그래, 그랬을 거야?'하며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니, 어느새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며, 그 짧았던, 무서웠던, 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사순절에 이 짧은 경험을 통해, 살아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며 체험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 팬데믹을 통해 얻은 믿음과 CPA 자격증

최재관 \_ 뉴저지체리힐제일교회

2019년 10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아내가 신문을 보며 “이거 한번 해 보면 어때?”라고 물었다. 세무사 시험을 위한 강의를 한다는 것이었다. 기간은 두 달, 토요일과 주일 6시간씩 강의를 한다는 내용이였다. 내 나이가 이제 예순 여섯! 그렇지 않아도 장사는 시원치 않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드는 중이었다. 그렇다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은퇴하기에는 너무 일러 줌 어정쩡한 나이였다. 그래서 “응, 그래?” 하고 몇 날을 보내고 있는데 집사님이 다시 물어보았다. “생각해 봤어?” 그때서야 아내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다. ‘이 나이에 어떻게?’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

했다. 무엇보다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할까 봐 두려웠고 ‘그 나이에 어쩔 수 없지’라는 조롱 비슷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을 고민 끝에 한 번 도전해 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수강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엇보다 토요일과 주일에 6시간씩 들어야 하는 강의도 생각보다 힘들었고, 가게 일 하랴, 복습, 연습하랴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보아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며 시



작하길 한 달.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었다. ‘이제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붙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여! 이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짜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집사람과 자식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 달. 모든 강의가 끝나고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크리스마스 와 새해가 지나고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Part I 시험을 PASS 할 수 있었다. 그러도 한 달 뒤, Part II 시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 시험을 다 치르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던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써 놓았던 답이 컴퓨터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은 불과 20분, 100문제 중 저장되지 않은 것이 60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Fail.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나의 오만함으로 집사람과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험당할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웠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의 오만함과 경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씩씩한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다시 Part II 시험 준비를 할 즈음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다. 가게를 열 수도 없었고 시험 보는 곳도 문을 닫아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지고 모든 것이 stop 된 상태에서 한 달은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모아둔 돈은 넉넉지 못한테 나가는 돈은 어김없이 pay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들은 EIDL이다, PPP Loan이다, 신청하면 돈이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오질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잠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뜨면 2시, 3시, 시도 때도 없이 눈이 떠지면 더 잘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그러기를 두 달. 새벽기도를 통하여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내게 밀려왔다. “주여, 이제 다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을 원망치 않겠나이다. 다만 이것을 허락  
하시면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  
히 깨닫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 죄  
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시옵  
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Part II, Part III 시험  
공부를 병행했다. 새벽 3시부터 새벽예배  
까지. 그리고 가게에 출근해서 일하기를 4  
개월. 지난 12월에 모든 시험을 Pass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받았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무엇보다 자신감  
을 주셨으며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셨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에 충만  
한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  
음,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  
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  
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  
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  
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  
하나”(마 6:26-27). 이 말씀과 함께 내 마  
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  
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라는 이사  
야 말씀이 내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 주  
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쉽게 깨어  
지고 매일매일 넘어져도 이 팬데믹을 통하  
여 주신 이 ‘믿음의 확신’의 끈을 붙잡고 살  
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셔서 내게 그 풍성한 은혜와  
금홍을 부어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  
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족에게 전해지길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힘주시  
고 소망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간다. 아멘.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

#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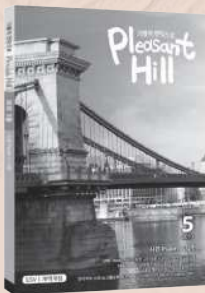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 (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 (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 (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옥,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웅,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 (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 (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 310-645-3699)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욱, 323-382-0691)  
벤나이스연합감리교회 (이상호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안정선,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 (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 (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 408-295-4161)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성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 (949-786-8354)  
언약교회 (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 (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 (이강원, 408-746-9553)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 (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 (이진식, 925-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 (김태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 916-987-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 (김정민, 858-354-0009)  
히스패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황,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 **Delaware(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사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버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근, 678-431-7924)  
해밀턴한인교회(정찬웅,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익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원홍연,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염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아이오와 주)**

다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과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용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다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네바다 주)**

겨자씨한일연합감리교회(이기용,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문정용, 732-613-4930)  
그레이스벨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여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원, 973-694-3880)  
아쿨라연합감리교회(안영호,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베크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립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이트북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용,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최현덕,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신승호,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라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염성일, 919-469-1514)

• **Ohio(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턴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메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 Oklahoma(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텔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 Oregon(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득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조병우, 215-884-5251)

####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 Tennessee(테네시 주)

내슈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득근,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창수, 409-554-0550)  
 성누기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칼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 Vermont(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 Virginia(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홍성욱,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401-3872)  
 와싱턴한인교회(김영호, 703-448-1131)

#### •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이대규, 262-658-1131)

#### •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 성경진도표

2023/01			2023/02			2023/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1
02	에베소서	1	02		2	02		2
03		2	03		3	03		3
04		3	04		4	04		4-5
05		4	05		주일	05		주일
06		5	06		5	06		6-7
07		6	07		6	07		8
08		주일	08		7	08		9
09	갈라디아서	1	09		8	09		10
10		2	10		9	10		11
11		3	11		10	11		12
12		4	12		주일	12		주일
13		5	13		11	13		13
14		6	14		12	14		14
15		주일	15		13	15		15
16	빌립보서	1	16		14	16		16
17		2	17		15	17		17
18		3	18		16	18		18
19		4	19		주일	19		주일
20	골로새서	1	20		17-18	20		19
21		2	21		19	21		20
22		주일	22		20	22		21-22
23		3	23		21	23		23
24		4	24	룻기	1	24		24
25	데살로니가전서	1	25		2	25		25
26		2	26		주일	26		주일
27		3	27		3	27		26
28		4-5	28		4	28		27:1-28:2
29		주일				29		28:3-29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30
31		3				31		31

2023/04			2023/05			2023/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고난주간	02		2	02		2-3
03		H-1	03		3	03		4-5
04		H-2	04		4	04		주일
05		H-3	05		5	05		6-7
06		H-4	06		6	06		8
07		H-5	07		주일	07		9-10
08		H-6	08		7	08		11
09	부활절	주일	09		8	09		12-14
10		2	10		9	10		15-17
11		3-4	11		10	11		주일
12		5	12		11	12		18-19
13		6	13		12	13		20-21
14		7	14		주일	14		22
15		8-9	15	호세아	1	15		23-24
16		주일	16		2:1-13	16		25-26
17		10	17		2:14-23	17		27
18		11	18		3	18		주일
19		12	19		4	19		28
20		13	20		5	20		29-30
21		14	21		주일	21		31
22		15-16	22		6	22		32
23		주일	23		7	23		33-34
24		17	24		8	24		35-36
25		18	25		9	25		주일
26		19	26		10	26		37
27		20-21	27		11	27		38-39
28		22	28		주일	28		40
29		23-24	29		12	29		41
30		주일	30		13	30		42
			31		14			

2023/07			2023/08			2023/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2	01	역대하	5	01	사도행전	1
02		주일	02		6	02		2
03		3-4	03		7	03		주일
04		5-6	04		8-9	04		3
05		7-9	05		10-11	05		4
06		10	06		주일	06		5
07		11	07		12	07		6-7
08		12	08		13	08		8
09		주일	09		14	09		9
10		13	10		15	10		주일
11		14	11		16	11		10
12		15	12		17	12		11
13		16	13		주일	13		12
14		17	14		18-19	14		13
15		18	15		20	15		14
16		주일	16		21-22	16		15
17		19	17		23	17		주일
18		20	18		24	18		16
19		21	19		25	19		17
20		22	20		주일	20		18
21		23	21		26	21		19
22		24-25	22		27-28	22		20
23		주일	23		29	23		21
24		26-27	24		30	24		주일
25		28	25		31	25		22
26		29	26		32	26		23
27	역대하	1	27		주일	27		24
28		2	28		33	28		25-26
29		3	29		34	29		27
30		주일	30		35	30		28
31		4	31		36			

2023/10			2023/11			2023/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예레미야	29	01	요한복음	1
02		1	02		30	02		2
03		2	03		31	03		주일
04		3	04		32	04		3
05		4	05		주일	05		4
06		5	06		33	06		5
07		6	07		34	07		6
08		주일	08		35	08		7
09		7	09		36	09		8
10		8-9	10		37	10		주일
11		10	11		38	11		9
12		11	12		주일	12		10
13		12	13		39	13		11
14		13	14		40-41	14		12
15		주일	15		42	15		13
16		14	16		43	16		14
17		15	17		44-45	17		주일
18		16	18		46-47	18		C-1
19		17	19		주일	19		C-2
20		18	20		48	20		C-3
21		19-20	21		49	21		C-4
22		주일	22		50	22		C-5
23		21	23		51	23		C-6
24		22	24		52	24		주일
25		23	25	예레미야애가	1	25		15
26		24	26		주일	26		16
27		25	27		2	27		17
28		26	28		3	28		18
29		주일	29		4	29		19
30		27	30		5	30		20
31		28				31		21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박효연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운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조기현,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562-944-5344 (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배혁 목사 (샌안토니오한인연합감리교회, TX)

❖ 주일 칼럼  
김규현 목사 (열린교회, CA)  
김정환 목사 (커네티컷중앙연합감리교회, CT)  
이강원 목사 (예수사랑교회, CA)  
주활 목사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CO)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 1976, 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